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SKEN-KSCVS 합동 연수강좌

일시 | 2019년 9월 7일(토)

장소 |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4층 미래홀

주최 |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주관 |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평점 | 6점

2019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임원진

명예회장

직 위	성 명	소 속
명예회장	백민우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회장

직 위	성 명	소 속
회장	고준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상임이사

직 위	성 명	소 속
총무	신승훈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학술	장철훈	영남대학교병원
정책	강현승	서울대학교병원
간행	김성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보험	박석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권현조	충남대학교병원
수련교육	권순찬	울산대학교병원
재무	김영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인증위원장	이호국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진료지침	임용철	아주대학교병원
대외협력	윤석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국제교류	김대원	원광대학교병원
전산정보	조준성	단국대학교병원
회원관리	장인복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홍보	유승훈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연보·학회사편집	김태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다기관연구	황교준	분당제생병원
회칙개정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법제윤리	전영일	건국대학교병원
광주/전라지회	김태선	전남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회	강연구	에스포항병원
대전/충청지회	조준성	단국대학교병원
부산/울산/경남지회	정진영	연세에스병원
감사	고준경	부산대학교병원
간사	정준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2019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임원진

전임회장단

직 위	성 명	소 속
초대, 제2대	백민우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제3대	김영준	단국대학교병원
제4, 5대	권도훈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제6대	안성기(작고)	(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제7대	신용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제8대	권오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9대	김범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제10대	성재훈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운영위원

직 위	성 명	소 속
학술위원회	정영진	영남대학교병원
	박중철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조수희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신희섭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박근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재일	부산대학교병원
	강동훈	경북대학교병원
	박상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최규선	한양대학교병원
수련교육위원회	오재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인증위원회	신동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희섭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전홍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김소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오인호	중앙보호병원
	안준형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교과서편찬위원회	윤석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김영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태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황교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오재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준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교류위원회	남택균	중앙대학교병원
	박정수	전북대학교병원
	신희섭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동훈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영진	영남대학교병원

2019년도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임원진

실행이사회

직위	성명	근무처
회장	김종수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부회장	고현송	충남대학교병원
총무	김용배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학술	박재찬	경북대학교병원
간행	김대원	원광대학교병원
기획홍보	권순찬	울산대학교병원
역사편찬	김태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교과서편찬	이상원	부산대학교병원
정보통계	최석근	경희대학교병원
회칙개정	정승영	을지대학교병원
보험	이재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회원관리	김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수련교육	주성필	전남대학교병원
국제교류	서의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재무	유찬중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도관리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다기관임상시험	박동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심의 및 법제	장철훈	영남대학교병원
정책	박석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의료판례	이철희	경상대학교병원
관련학회 조정	남택균	중앙대학교병원
혈관내수술	윤석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급성뇌경색	정진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두개저외과	장경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방사선수술	임용철	아주대학교병원
여성분과	박문선	을지대학교병원
뇌혈관해부연구회	최찬영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뇌혈관문합연구회	하성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특별이사(News Letter)	이상원	부산대학교병원
특별이사 (뇌혈관수술인종의 추진위원회)	안재성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감사	현동근	인하대학교병원
감사	임준섭	광주기독병원
간사	연제영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상임이사회

성명	근무처
김범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인성	경상대학교병원
정영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태선	전남대학교병원
김종수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고현송	충남대학교병원
임동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박익성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안재성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박재찬	경북대학교병원
신용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권오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재훈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이재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전임회장단

성명	근무처
홍승철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주진양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성돈	원광대학교병원
김재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허필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오창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현선	인하대학교병원
박인성	경상대학교병원
정영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명예회장단

성명	근무처
김광명	한양의대
김국기	경희의대
김달수	가톨릭의대
김승래	경북의대
이제혁	전남의대
한대희	서울의대
이동열	침례병원
최병연	영남의대
권병덕	울산의대
허승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한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나형균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인사말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한여름 폭염도 점차 지나가고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가을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2019년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합동연수강좌를 함께 준비해주신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종수 회장님과 양 학회 이사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뇌혈관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술기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양 학회 회원들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뇌혈관질환 관련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합동연수강좌에서는 모야모야병과 두개강내 뇌혈관박리질환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준비했고 뇌졸중분야에서 DTI의 임상적 적용에 관해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의미 있는 연수강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 학회 회원 간의 친교도 돈독히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2019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합동연수강좌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회장
고 준 석**

인사말



친애하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및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수확을 앞둔 결실의 이 좋은 계절에 양 학회가 합동 연수강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가 주최가 되어 모야모야병 및 IC dissection을 주제로 고준석 회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수고해 주셨고 알찬 연수교육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서 출발한 회원님들이 뇌혈관내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를 만드시고 발전시켜 오신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최근의 양 학회 회원들은 두 학회 모두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향후 양 학회의 발전적 통합이 이루어져서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전문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학회로의 발전을 꿈꾸어 봅니다. 양 학회 회원 모두의 정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김 종 수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SKEN-KSCVS 합동 연수강좌

일 시 | 2019년 9월 7일(토)

장 소 |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4층 미래홀

09:15-09:25	개회사	고준석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회장) 김종수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09:25-09:30	축사	오창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09:30-10:45	Session I. Moyamoya Disease: General	좌장: 강현승 (서울대), 안재성 (울산대)
	Epidemiology and clinical course of Moyamoya disease	김재훈 (을지대) 16
	Genes in Moyamoya disease: Updates information of the function of RNF213 and novel candidate gene for Moyamoya disease	심규원 (연세대) 23
	Diagnostic image of Moyamoya disease: Radiologic image & differential diagnosis of Moyamoya disease	김용배 (연세대) 33
10:45-11:00	Coffee Break	
11:00-12:15	Session II. Moyamoya Disease: Treatment	좌장: 성재훈 (가톨릭대), 고현승 (충남대)
	Bypass strategies for Moyamoya disease: Risk and incidence of complication & avoidance of complication from revascularization surgery	연제영 (성균관대) 36
	Surgical role in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김정은 (서울대) 38
	Endovascular treatment for targeted embolization in Moyamoya disease with hemorrhagic manifestation	반승필 (서울대) 48
12:15-13:10	Lunch	
13:10-14:00	Special Lecture	좌장: 고준석 (경희대), 김종수 (성균관대)
	Clinical application of DTI for stroke in the viewpoint of neurosurgery	장성호 (영남대 재활의학과) 62
14:00-15:15	Session III. Intracranial Dissection: General	좌장: 윤석만 (순천향대), 김태선 (전남대)
	Epidem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intracranial dissection	권오기 (서울대) 70
	Diagnostic image of intracranial dissection	류창우 (경희대 영상의학과) 71
	Natural course and medical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김대원 (원광대) 75
15:15-15:30	Coffee Break	
15:30-17:00	Session IV. Intracranial Dissection: Treatment	좌장: 신용삼 (가톨릭대), 정영균 (인제대)
	Surgical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박재찬 (경북대) 74
	Endovascular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백승국 (부산대 영상의학과) 79
	Complicated cases and panel discussion	주성필 (전남대) 83
		김성림 (가톨릭대) 86
		이재일 (부산대) 87
		박중철 (울산대) 88
17:00	폐회사	김종수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고준석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회장)

초청연자



장 성 호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경력

199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8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료
1999-2013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2013-현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석좌교수

수상

2007	대한 재활의학회 학술상
2009	대한 재활의학회 학술상
2009	대구광역시 의사회 학술상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 - 의학계열 연구업적 전국 1위
2013	대한 재활의학회 학술상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 논문의 질 [피인용도] 높은 연구자: 의학계열 전국 2위
2015	대한 재활의학회 신정순 학술상 제1회 수상
2017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선정
2019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정

초청연자



류 창 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학력 및 경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의학과 석사

강원대학교 의학과 박사

분당차병원 전공의 수료

서울지구병원 방사선과장

서울아산병원 뇌신경방사선학 전임의

인하대학병원 뇌신경방사선학 전임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학회활동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보험이사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보험이사

초청연자



백 승 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학력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침례병원 영상의학 과장

계명대 의과대학 조교수

경북대 의과대학 부교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SKEN-KSCVS 합동 연수강좌



Session I. Moyamoya Disease: General

좌장: 강현승(서울대), 안재성(울산대)

1. Epidemiology and clinical course of Moyamoya disease

김재훈 (을지대)

2. Genes in Moyamoya disease: Updates information of the function of RNF213 and novel candidate gene for Moyamoya disease

심규원 (연세대)

3. Diagnostic image of Moyamoya disease:

Radiologic image & differential diagnosis of Moyamoya disease

김용배 (연세대)

Epidemiology and clinical course of Moyamoya disease

김재훈

을지대

A. Definition

1. Moyamoya disease (MMD)

- Progressive stenosis and occlusion of the distal part of ICA
- Formation of a fine vascular network (moyamoya vessels)
- No etiology
- Bilateral lesions

2. Probable MMD or unilateral MMD

- Unilateral lesion

3. Quasi-MMD or MM syndrome

- Atherosclerosis, autoimmune disease, meningitis, brain neoplasm, Down's syndrome, neurofibromatosis, head trauma, cranial irradiation, sickle cell disease, hyperthyroidism

B. Epidemiology

1. Incidence (I) and prevalence (P)

- Korea : I = 1.0 (2008) ~ 4.3 (2013) /105-year
P = 6.3 (2005) ~ 18.1 (2013) /105
- Japan : I = 0.35 (1994) ~ 1.36 (2006) /105-year
P = 3.16 (1994) ~ 10.5 (2002-2006) /105
- China : I = 0.43 (2000-2007) ~ /105 -year
P = 3.92 (2000-2007) ~ /105
- Taiwan : I = 0.048 (1978) ~ 0.2 (2011) /105-year

$$P = 1.61(2011) / 105$$

- USA : I = 0.05 (1973-1997) ~ 0.17 (1987-1996) /105-year
- Europe : I = 0.03 (1996) ~ 0.047 (1994-2015) /105-year

2. Gender differences (Female to Male ratio)

- Korea : 1.4 (2010) ~ 1.9 (2004-2008)
- Japan : 1.8 (1994) ~ 2.2 (2002-2006)
- China : 0.9 (2002-2010) ~ 1.1 (2000-2007)
- Taiwan : 1.1 (2000-2005) ~ 1.7 (2006-2011)
- USA : 2.5 ~ 8
- Europe : 2.1 (1994-2015) ~ 4.2 (1996-2007)
- Explanations: Difference in coagulation and fibrinolytic pathways, the effect of estrogen on the endothelium and surrounding connective tissue, X-linked genetic differences, methylation patterns

3. Age distribution (years)

- Korea : 2 peaks (5-15 vs. 45-54)
- Japan : 2 peaks (5-9 vs. 45-49)
- China : 2 peaks (5-9 vs. 35-45)
- Taiwan : 2 peaks (5-14 vs. 40-44)
- USA : 2 peaks (5-9 vs. 55-59)
- Europe : 2 peaks (0-9 vs. 30-39)

4. Familial MMD

- Autosomal dominant inheritance with incomplete penetration
- Familial occurrence: 10-15% (East Asian), 2% (USA), 1.3-7.1% (Europe)
- Early onset of symptom
- Higher Female to male ratio

5. Explanations for the discrepancy of epidemiology

- Different survey methods (different inclusion criteria/ population based or in-hospital based)
- Different genetic or environmental factor

6. Trends

- Increase of both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because of an increase in newly diagnosed MMD and survivors
- Change of epidemiologic features

C. Clinical course

1. TIA and ischemic stroke

- Cerebral ischemia in the territory of the ICA, particularly in the frontal lobe
- Focal neurological deficit: hemiparesis, speech or sensory disturbances
- Atypical symptoms: syncope, visual symptoms, involuntary movements, intellectual or cognitive impairment
- Hyperventilation-induced ischemic attack in pediatric patients

2. Hemorrhage

- Intraventricular (IV), intraparenchymal (IP), subarachnoid hemorrhage
- IVH occurs more commonly than in hypertensive IPH
- Rupture of dilated, fragile MM vessels: persistent hemodynamic stress of the MM vessels (basal ganglia, thalamus, or periventricular region)
- Rupture of saccular aneurysms: hemodynamic stress induces the formation of a saccular aneurysm
- Rupture of dilated pial collateral arterioles

3. Headache

- Frontal or migraine-like headache
- Lower the threshold for migraine or increase spreading cortical depression
- Dilated transdural collaterals stimulate dural nociceptors

4. Seizure

- 20-30% of MMD patients
- Predictors for epilepsy: lower mRS score, diffuse brain atrophy, early seizure

5. Involuntary movement

- Usually in children (4% of pediatric patients)
- Cerebral hypoperfusion in the basal ganglia and in the relevant cerebral cortex
- dilated MM-associated collaterals in BG

6. Intellectual or cognitive impairment

- Intellectual impairment due to frontal ischemia in pediatric patients
- Cognitive dysfunction (delayed recall, visual space & executive function) in adults due to frontal, medial temporal, hippocampal ischemia
- Ongoing COSMO-JAPAN study

D. Interesting issues

1. Natural course

1) Kuroda (2005)

- MMD progression: 15/63 (23.8%)
- Mean time to progression from diagnosis: 60 months (1.5-8 years)
- Risk factor: female

2) Kuroda (2007)

- MMD progression: related to silent infarction or ischemic events
- Annual stroke rate = 3.2% (mean FU 43.7 months)

3) Gross (2013)

- 42 MMD/S patients, mean FU 2.9 years
- Annual stroke rate = 13.3%, hemorrhage rate = 1.7%
- Risk factors for future stroke: female, recent stroke (within 3 years)

4) Cho (2015)

- 241 adults with stable hemodynamics, (mean FU 82.5 months)
- Type: ischemia (59.8%), hemorrhage (25.7%), asymptomatic (14.5%)
- Annual stroke rate = 4.5% (ischemic 3%, hemorrhagic 4.3%)
- Annual stroke rate in asymptomatic patients = 3.4% (ischemic 0.8%, hemorrhagic 2.5%)
- Worst clinical outcomes: hemorrhagic group

5) Kim (2017)

- 176 patients, mean FU 83 months
- Overall annual recurrent hemorrhage rate = 3.4%/person during 5 years

2. Unilateral MMD

1) Smith (2008)

- 10/33 patients progressed to bilateral disease over 5 years
- disease progression risk: contralateral abnormalities on initial imaging, congenital cardiac anomalies, previous cranial irradiation, Asian ethnic origin, familial MMD

2) Hayashi (2013)

- Incidence = 0.23/105-year, prevalence = 0.66/105
- Ratio of unilateral to all MMD: 10.6%

3. MMD-related aneurysm (3.4~14.8%)

1) Yeon (2011)

- Prevalence = 9/249 (3.6%)
- Posterior location: 54%
- Increasing tendency in patients over 50 years

2) Zhang (2015)

- Pathogenesis: hemodynamic stress, pathological vessel architecture
- Type: major artery, peripheral artery (ant. & post. Choroidal artery), moyamoya vessel (lenticulostriate, thalamo-perforating artery), meningeal artery, anastomosis site

3) Kim (2018)

- Prevalence = 11/132 (8.3%)
- Rupture rate = 7/11 (63.6%)

4. Asymptomatic MMD

1) Ikeda (2006)

- 8/11402 healthy (0.07%)
- Men 0.05%, Women 0.1%
- Mean age: men 54.8 years, women 53.3 years
- Estimated prevalence 50.7/105
- Family history: 62.5%

2) Kuroda (2007)

- 40 asymptomatic patients (13-67 years)
- Silent infarction: 20%, Disturbed cerebral hemodynamics: 40%
- 7/34 conservatively treated patients: TIA (3), intracranial bleeding (3), ischemic stroke (1) 43.7 months FU
- Annual risk for any stroke: 3.2%
- Asymptomatic MMD: not a silent disorder and potentially cause ischemic or hemorrhagic stroke.

3) Jo (2014)

- 40 (74 hemispheres) asymptomatic adult patients
- 32 months FU: TIA 3/40
- Angiographic 24 months FU: 3 progression, 3 new hemodynamic abnormality
- Predictors of symptomatic progression: decreased vascular reserve capacity, smoking

4) Yang (2014)

- 42 (75 hemispheres) asymptomatic adult patients (37 months FU)
- 4 Hemisphere (5.3%) symptomatic progression (3 hemorrhage, 1 TIA)
- 9 Hemisphere (12%) angiographic progression
- Predictor of progression: decreased initial cerebrovascular reserve capacity

5) Ongoing AMORE study

5. Quasi-MMD or MM syndrome

1) Hayashi (2014)

- 109 patients
- F:M = 1.57, mean age = 30.6 years
- Bimodal peaks, familial (7%)
- Cause: atherosclerosis, Down syndrome, von Recklinghausen disease
- Unilateral lesion, mild moyamoya vessels, less frequent intracranial hemorrhage

2) Zhao (2017)

- 64/693 patients (9.2%)
- Mean age: 31.5 years, unimodal age distribution
- Cause: atherosclerosis, hyperthyroidism
- Annual risk of stroke = 19.4%/patient

E. Future perspectives

- Epidemiology: need to perform a population-based study, especially in Westerns
- Natural history of MMD (symptomatic, asymptomatic, disease progression):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al trial

F. References

- Acker G: Distinct clinical and radi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yamoya disease amongst European Caucasians. *Eur J Neurol* 2015
- Ahn IM: Incidence, prevalence, and survival of moyamoya disease in Kore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Stroke* 2014
- Baba T: Novel epidemiological features of moyamoya disease.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08
- Bao XY: Clinical features, surgical treatment and long-term outcome in adult patients with moyamoya disease in China. *Cerebrovasc Dis* 2012
- Bao XY: Epidemiology of moyamoya disease in China: single-center, population-based study. *World Neurosurg* 2019
- Birkeland P: Incidence of moyamoya disease in Denmark: a population-based register study. *Acta Neurochir Suppl* 2018
- Chen PC: Epidemiology of moyamoya disease in Taiwa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Stroke* 2014
- Cho WS: The natural clinical course of hemodynamically stable adult moyamoya disease. *J Neurosurg* 2015
- Gross BA: The natural history of moyamoya disease in a North American adult cohort. *J Clin Neurosci* 2013

- Hayashi K: An epidemiological survey of moyamoya disease, unilateral moyamoya disease and quasi-moyamoya disease in Japan. *Clin Neurol Neurosurg* 2013
- Hayashi K: A nationwide survey on unilateral moyamoya disease in Japan. *Clin Neurol Neurosurg* 2014
- Hayashi K: National survey on quasi-moyamoya disease in Japan. *Acta Neurochir* 2014
- Hever P: Moyamoya angiopathy – is there a Western phenotype? *Br J Neurosurg* 2015
- Hoshino H: Epidemiological features of moyamoya disease in Japan. *Neurol Med Chir (Tokyo)* 2012
- Ikeda K: Adult moyamoya disease in the asymptomatic Japanese population. *J Clin Neurosci* 2006
- Jeon JP: A recent update of clinical and research topics concerning adult moyamoya disease. *J Korean Neurosurg Soc* 2016
- Jo KI: Clinical course of asymptomatic adult moyamoya disease. *Cerebrovasc Dis* 2014
- Kainth D: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features of moyamoya disease in the USA. *Neuroepidemiology* 2013
- Kim JH: Intracranial aneurysms in adult moyamoya disease. *World Neurosurg* 2018
- Kim KM: Natural history and risk factor of recurrent hemorrhagic adult moyamoya disease. *Neurosurgery* 2017
- Kim T: Epidemiology of moyamoya disease in Korea: based on NHIS data. *J Korean Neurosurg Soc* 2015
- Kleinloog R: Regional differences in incidence and patient characteristics of moyamoya disease. *Cerebrovasc Dis* 2012
- Kraemer M: Moyamoya disease in Europeans. *Stroke* 2008
- Krischek B: Genet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oyamoya disease in Europeans. *Acta Neurochir Suppl* 2011
- Kuriyama S: Prevalence and clinicoepidemiological features of moyamoya disease in Japan: findings from a nationwide epidemiological survey. *Stroke* 2008
- Kuroda S: Asymptomatic moyamoya disease: literature review and ongoing AMORE study. *Neurol Med Chir (Tokyo)* 2015
- Kuroda S: Radiological findings, clinical course, and outcome in asymptomatic moyamoya disease: results of multicenter survey in Japan. *Stroke* 2007
- Miao W: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features of moyamoya disease in Nanjin, China. *Clin Neurol Neurosurg* 2010
- Mikami T: Predictive factors for epilepsy in moyamoya disease. *J Stroke Cerebrovasc Dis* 2015
- Sato Y: Characteristics of moyamoya disease based on National Registry Data in Japan. *Stroke* 2019
- Savolainen M: Moyamoya angiopathy: long-term follow-up study in a Finnish population. *J Neurol* 2019
- Shang S: Progress in moyamoya disease. *Neurosurg Rev* 2018
- Su SH: Assessment of cognitive function in adult patients with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who received no surgical revascularization. *Eur J Neurol* 2013
- Takagi Y: Cognitive dysfunction survey of the Japanese patients with moyamoya disease [COSMO-JAPAN Study] study protocol. *Neurol Med Chir (Tokyo)* 2015
- Weinberg DG: Moyamoya disease: functional and neurocognitive outcomes in the pediatric and adult populations. *Neurosurg Focus* 2011
- Yang J: Clinicoepidemiological features of asymptomatic moyamoya disease in adult patients. *J Cerebrovasc Endovasc Neurosurg* 2014
- Yim SH: Prevalence and epidemiologic features on moyamoya disease in Korea. *J Cerebrovasc Endovasc Neurosurg* 2012
- Yeon JY: Incidental major artery aneurysms in patients with non-hemorrhagic moyamoya disease. *Acta Neurochir* 2011
- Zhang L: Treatment strategies for aneurysms associated with moyamoya disease. *Int J Med Sci* 2015
- Zhao M: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natural history of Quasi-moyamoya disease. *J Stroke Cerebrovasc Dis* 2017

Genes in Moyamoya disease: Updates information of the function of RNF213 and novel candidate gene for Moyamoya disease

심규원

연세대

Genes in Moyamoya disease: Updates information of the function of RNF213 and novel candidate gene for Moyamoya disease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신경외과

심규원

모야모야병이란?

Suzuki & Takaku, 1969

1. 원인을 알 수 없어
2. 점진적으로
3. 양측성
4. 내경동맥의 원위부 폐쇄

유사 모야모야병

1. 모야모야병
혈관 조영술상 양측성, 원인이 없는 경우
2. 유사 모야모야병
혈관 조영술상 일측성, 원인이 없는 경우
3. 모야모야 증후군
혈관 조영술상 양측성, 원인이 있는 경우

모야모야병의 역학

1. 서양 <<<< 동양 : 한국, 일본, 몽골
2. 호발 연령
 - 1) 4 ~ 6 세 (뇌허혈성 증상)
 - 2) 20대 중반 (한국)
 - 3) 40대 중반 (뇌출혈성 < 허혈성 증상)
3. 유전적 인자
 - 1) 형제간 발병 가능성 : 42배
 - 2) 후손에서의 발병 가능성 : 34배
 - 3) 실제 가족간의 유병률 : 15~20%

Epidemiology

Japan

	Incidence/Prevalence	Patients (N)	Female-male	Familial (%)	Age at onset
1995	0.35/3.16	5,227	1.8	10	5 yr 30-49 yr
2006	0.94/10.5	10,812	2.18	15.4	45-49 yr 5-9 yr

2006-2008 JNNP Baba + 1997 GNM Wakai

Epidemiology

Japan

Table 1 Epidemiological features of moyamoya disease

	Present study	Previous study—1997 ^a
Number of cases	267	1176
Detection rate (per 100 000)	0.94	0.35
Prevalence (per 100 000)	10.5	3.16
Sex ratio (male:female)	1:2.2	1:1.8
Patients younger than 10 years old at onset (%)	15.1%	47.8%
Pattern of age distribution	2 peaks	2 peaks
Highest peak in age distribution (in years)	45-49	10-14
Second peak in age distribution (in years)	5-9	40-49
Patients with family history	15.4%	10.0%

종전의 결과에 비해 몇 가지의 차이를 보인다.

Detection rate가 높아짐.

10세 이하의 15.1%. 10세 이전에 증세가 나타나는 비율이 줄었음.

가장 많이 진단되는 나이는 45-49세다. 나이가 조금 달라짐.

여 : 남 = 2/8 : 1. 성인이세 여성 환자의 비율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2008 JNNP Baba T., Houkin K, et al

Epidemiology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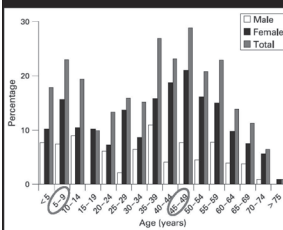


Figure 2 Onset age distribution of moyamoya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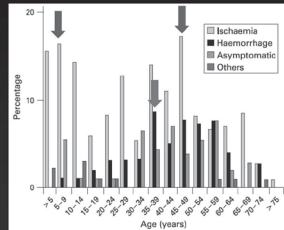


Figure 3 Age distribution of disease pattern at onset.

허혈성 57.4%, two peak 45-49, 5-9 ()
출혈성 21%, 35-39세에 one peak ()
무증상 17.8%, 5-8, adult

Epidemi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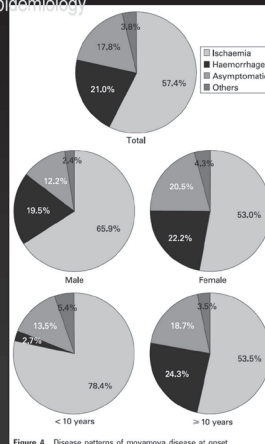


Figure 4 Disease patterns of moyamoya disease at onset.

Ischemia: male : female = 65.9% : 53%

Female: hemorrhage: 22.2%, asymptomatic: 20.5%

Male: hemorrhage: 19.5%, asymptomatic: 12.2%

Ischemia: 78.4% <10yrs, 53.5% > 10 yrs.

Hemorrhage: 2.7% <10yrs, 24.3% > 10 yrs.

Familial MMD: 37.8% < 10yrs, 12.2% > 10 yrs

초전의 자료는 주로 대학 병원에서 받은 것들이지만 이번 연구는 중추혈관 및 다양한 형태의 지역병원에서 자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자료에서는 누락되었던 성인 환자의 자료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18%의 무증상 환자 특이한데, 이는 일본의 brain check-up system으로 인한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Epidemiology

2000 Korea

Table 1. General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All patients	Adults (>=16)	Children (<16)	p-value**
Number (%)	334	213 (63.8%)	121 (36.2%)	
Age, mean ± SD, year	26.7 ± 17.1	37.1 ± 12.1	8.2 ± 3.6	
Median, year	26.5	36.1	3.6	
Sex, % of male	40.7	39.9	42.1	NS
Mode of presentation				<0.0001
Haemorrhage, %	43.1	62.4	9.1	
Ischaemia, %	38.3	25.4	61.2	
Seizure, %	10.8	3.8	23.1	
Presenting symptoms				
Decreased level of consciousness, %	38.0	54.5	9.1	<0.0001
Weakness, %	59	45.5	83.5	<0.0001
Suzuki grade, mean ± SD	3.4 ± 1.1	3.4 ± 1.2	3.4 ± 0.9	NS
Favorable onset (KPS => 70), %	73.1	57.3	80.2	<0.0001
Mode of treatment				
Bypass surgeries, %	38.1	24.4	62.0	<0.0001
(Bilateral bypass surgery (%))*	(55.5)	(46.2)	(58.7)	NS
Outcome				
Mortality, %	3.3	4.7	0.8	<0.0001
Favorable outcome (KPS => 70), %	73.1	70.4	77.7	0.09

* Percentage of bilateral bypass surgery in cases performed bypass operations.

** Comparison between adult and child patients.

N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2000 Acta

Epidemiology

2000 Korea

Table 2. Comparison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Haemorrhage and Ischaemia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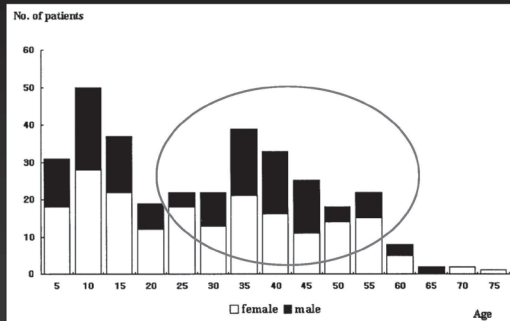
Characteristics	Haemorrhage	Ischaemia	p-value
Number	144	126	
Age, mean ± SD, year	36.9 ± 13.1	19.2 ± 16.0	<0.0001
Median, year	37	12	
% of adults	92.4	42.2	<0.0001
Sex, % of male patients	35.4	44.5	NS
Presenting symptoms			
Decreased level of consciousness, %	63.2	14.8	<0.0001
Weakness, %	39.6	80.5	<0.0001
Suzuki grade, mean ± SD	3.4 ± 1.4	3.5 ± 0.9	NS
Favorable onset (KPS => 70), %	52.8	78.9	<0.0001
Mode of treatment			
Bypass surgeries, %	25.7	53.9	<0.0001
(Bilateral bypass surgery, %)*	(43.2)	(53.6)	NS
Outcome			
Mortality, %	5.8	2.3	<0.0001
Favorable outcome (KPS => 70), %	67.4	77.3	NS

* Percentage of bilateral bypass surgery in cases performed bypass operations.

N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Epidemiology

2000 Korea



Epidemiology

2012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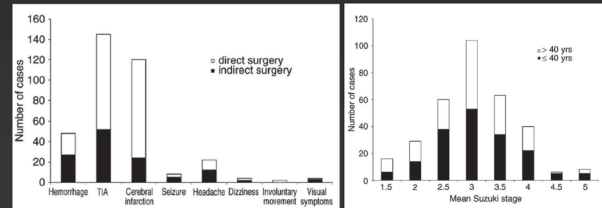
348 pts (M : F = 128 : 220), Age 39 years (18-68 years)

325 surgical treatment for 283 pts

216 direct + indirect for 192 pts

109 direct for 91 pts

65 pts; clinical follow-up



2012 Neuro Med Chir JE Kim et al

원인 : ???????????

- 1) 나병, 결핵 등의 감염
- 2) 섬유아세포 증식 이상
- 3) 면역학적 질환
- 4) 혈전
- 5) 고압신경 이상
- 6) 유전적 이상 : Phakomatosis, fibromuscular dysplasia, collagen disease, Down syndrome, MMP9, RNF213?
- 7) 혈관의 내막 손상 -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PDGF) - 내경동맥 협착
- 8) 혈관 내피세포 이상?

병인론

1. 혈소판 오발 인자의 혈관 내피 치유 과정의 이상
 2.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의 혈관 손상치유 과정의 이상
- > 혈관 내피 세포의 과다 증식으로 점진적인 혈관 막힘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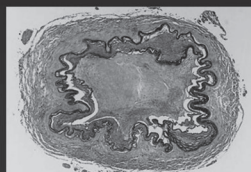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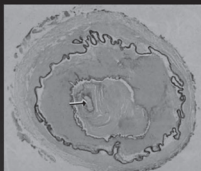
조직학적 이상 소견

일차 병변 (뇌혈관벽의 내피층)

- 1) 섬유소의 침착으로 내피 두꺼워짐
- 2) 내측 탄력층의 점막과 그분리된 늘어짐
- 3) 영종 소견은 거의 없다.

이차 축분소관

- 1) 내측 탄력층의 파괴
- 2) 내피의 섬유화
- 3) 미세 동맥류
- 4) 부분 파열



Smooth-muscle progenitor cells isolated from patients with moyamoya disease: novel experimental cell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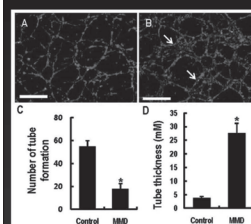


Fig. 3. Tube formation assay. A and B: Photomicrographs showing immunofluorescence staining of SPCA. Compared with SPCA obtained in a healthy volunteer (A), SPCAs obtained in a patient with MMD made rather irregularly arranged tubules of varying sizes (B). In some areas, thickened tubules were noted (arrows). Bars = 500 μ m. C and D: Bar graphs showing that SPCAs obtained in patients with MMD formed thickened tubules of fewer numbers compared with controls (SPCAs were obtained in 3 patients and 3 control volunteers). Asterisks = $p < 0.01$.

TABLE 2: Gene ontology terms in upregulated genes in SPCs obtained in patients with MMD

Term	p Value
GO:0007169: response to endogenous stimulus	0.019
GO:0000002: regulation	0.017
GO:0042801: response to drug	0.023
GO:0006032: estrogen/proliferative pattern formation	0.023
GO:0048013: epidermal receptor signaling pathway	0.031
GO:0007075: response to hormone stimulus	0.037
GO:0042443: response to organic nitrogen	0.045
GO:0042443: response to epidermal hormone stimulus	0.042
GO:0007080: pattern specification process	0.045
GO:0000002: subcellular genome maintenance	0.054
GO:0002021: cell-pigmentation assembly	0.065
GO:0001482: neuron differentiation	0.069
GO:0002021: response to organic substance	0.069
GO:0006032: altered metabolic process	0.081
GO:0001482: kidney development	0.084
GO:0002021: respiratory tube development	0.089
GO:0002021: tube development	0.089
GO:0042127: regulation of cell proliferation	0.089

TABLE 2: Gene ontology terms in downregulated genes in SPCs obtained in patients with MMD

Term	p Value
GO:0007169: cell adhesion	0.0002005
GO:0007075: biological adhesion	0.0002002
GO:0006032: response to organic substance	0.0002002
GO:0006032: regulation of cell migration	0.0002002
GO:0006032: immune response	0.0002002
GO:0006032: regulation of transcription	0.0002002
GO:0006032: regulation of cell motion	0.0002002
GO:0006032: enzyme-linked receptor protein signaling pathway	0.0002002
GO:0006032: protein maturation by peptide bond cleavage	0.0002002
GO:0006032: positive regulation of immune system process	0.0012
GO:0006032: circulatory system process	0.0012
GO:0006032: blood circulation	0.0012
GO:0006032: regulation of cellular component size	0.0027
GO:0006032: protein processing	0.0031
GO:0006032: protein maturation	0.0044
GO:0006032: humoral immune response	0.0051
GO:0006032: complement activation	0.0058
GO:0006032: activation of plasma proteins involved in acute inflammatory response	0.0063
GO:0006032: vasculature development	0.0067
GO:0006032: response to wounding	0.0071
GO:0006032: immune response	0.0076
GO:0006032: positive regulation of cell migration	0.0076
GO:0006032: cell-cell adhesion	0.0076
GO:0006032: cellular response	0.0079
GO:0006032: positive regulation of immune response	0.0081
GO:0006032: activation of immune response	0.0085

J Neurosurg 120:415-425, 2014

TABLE 5: Literature review of putative pathogenetic DEGs in SPCs related to MMD*

Genes & Expression	Putative Pathogenetic Roles	Authors & Year
1ITG3	defective vascular morphogenesis	Ozerdem et al., 2001
1BAIPZL1	occlusion of internal carotid artery terminus	Koh et al., 2004; Nishimori et al., 1997
1CDH2	SMC phenotype change & increasing mobilization	Tillett et al., 2005
1EPHA5	defective vessel wall assembly	Kuijper et al., 2007; Zhang & Hughes, 2006
1MCM	vascular SMC proliferation	Okumura et al., 2004; Shih & Kumam, 1996
1GARNL4	impairment of postnatal angiogenesis	Carmona et al., 2009; Nishimoto, 2000
1PLXNC1	disruption of vascular tree formation & increased cellular migration & intimal hyperplasia	Walzer et al., 2005
1NEO1	interruption of vessel wall maturation	Park et al., 2004
1ARHGAP28	sustained activation of Rho GTPases & increased SMC migration & proliferation	Etienne-Manneville & Hall, 2002

* ARHGAP28 = Rho GTPase-activating protein 28; BAIAP2L1 = BAI1-associated protein 2-like 1; CDH2 = N-cadherin; EPHA5 = Eph receptor A5; GARNL4 = GTPase-activating Rap/RanGAP domain-like 4; ITGA3 = integrin α 3; NEO1 = neogenin homolog 1; PLXNC1 = plexin C1; $\uparrow$ = upregulated; $\downarrow$ = downregulated.

J Neurosurg 120:415–425, 2014

VEGF and KDR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is involved in vasculogenesis and vascular permeability in various intracranial lesions.

In ischemic disease, cerebral angiogenesis is caused by the release of VEGF.

VEGF affects vasculogenesis, endothelial cell proliferation and migration, vascular permeability, and stromal degrada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proteolytic enzymes that are involved in angiogenesis.

VEGF binds its receptor tyrosine kinases, VEGF receptor-1 and VEGF receptor-2 (also known as kinase insert domain containing receptor, or KDR).

KDR is the key receptor mediating angiogenesis and is essential for endothelial cell survival and integrity

VEGF in MMD

Takekawa et al. reported increased VEGF expression in autopsy specimens from adults with moyamoya disease.

Sakamoto et al. reported that the total meningeal cellularity and VEGF expression in the moyamoya dur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oyamoya patients compared to controls.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 (VEGF-A) is a disulfide bonded dimeric glycoprotein that is a member of a protein family that includes VEGF-B, VEGF-C, VEGF-D, and placental growth factor (PGF). The gene that encodes VEGF-A is located on human chromosome 6 and comprises a 14-kb coding region with eight exons.

VEGF acts on endothelial cells particularly through Flt-1 and KDR.

Epidermal growth factor (EGF) arising from hypoxia stimulates Flt-1 expression and inhibits KDR expression.

Plasma matrix metalloproteinases, cytokines and angiogenic factors in moyamoya disease

Table 1 Plasma cytokine assays in moyamoya disease patients and controls

Cytokines	Control	Moyamoya disease	p Value
	Mean $\pm$ SEM	Mean $\pm$ SEM	
MMP-1	149.42 $\pm$ 25.89 pg/ml	392.84 $\pm$ 118.20 pg/ml	0.2300†
MMP-2	52.29 $\pm$ 4.32 ng/ml	59.83 $\pm$ 3.21 ng/ml	0.2159†
MMP-3	13.59 $\pm$ 1.78 ng/ml	1.76 $\pm$ 0.38 ng/ml	<0.0001†
MMP-9	3.53 $\pm$ 1.34 ng/ml	115.53 $\pm$ 23.43 ng/ml	0.0002†
MMP-12	ODR below	8.92 $\pm$ 0.90 pg/ml	NA
TIMP-1	62.02 $\pm$ 6.15 ng/ml	36.68 $\pm$ 7.18 ng/ml	0.0180†
TIMP-2	107.96 $\pm$ 5.74 ng/ml	93.27 $\pm$ 3.46 ng/ml	0.0460†
MCP-1	79.90 $\pm$ 24.86 pg/ml	1205.61 $\pm$ 201.11 pg/ml	<0.0001†
Resistin	3.27 $\pm$ 0.65 ng/ml	3.38 $\pm$ 0.44 ng/ml	0.8960†
IL-1 β	0.19 $\pm$ 0.06 pg/ml	0.70 $\pm$ 0.13 pg/ml	0.0315†
IL-6	1.78 $\pm$ 0.35 pg/ml	1.75 $\pm$ 0.25 pg/ml	0.9513†
IL-8	ODR below	6.13 $\pm$ 1.77 pg/ml	NA
TNFr α	12.15 $\pm$ 5.00 pg/ml	7.77 $\pm$ 3.02 pg/ml	0.2030†
VEGF	24.22 $\pm$ 7.18 pg/ml	482.09 $\pm$ 120.77 pg/ml	0.0018†
PDGF- β B	112.75 $\pm$ 33.34 pg/ml	2071.48 $\pm$ 673.75 pg/ml	0.0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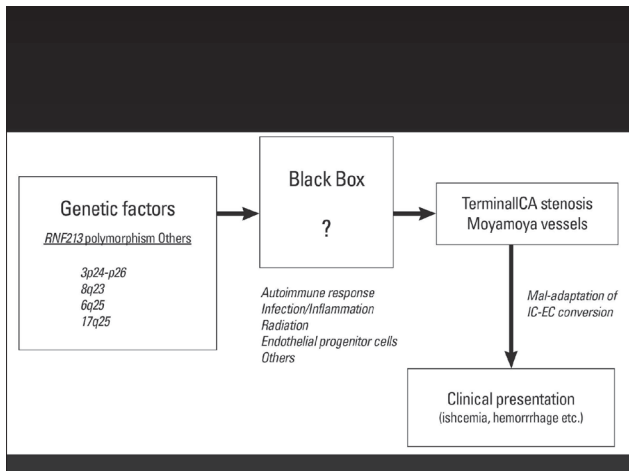
JoS
JOURNAL OF STROKE

Genetics and Biomarkers of Moyamoya Disease: Significance of *RNF213* as a Susceptibility Gene

The RNF213 gene (RNF213) in the 17q25-ter region was identified as a novel susceptibility gene for MMD among East Asian population

A polymorphism in c.14576G>A in RNF213 was identified in 95% of familial patients with MMD and 79% of sporadic cases

RNF213 was found to correlate with the early-onset and severe forms of MMD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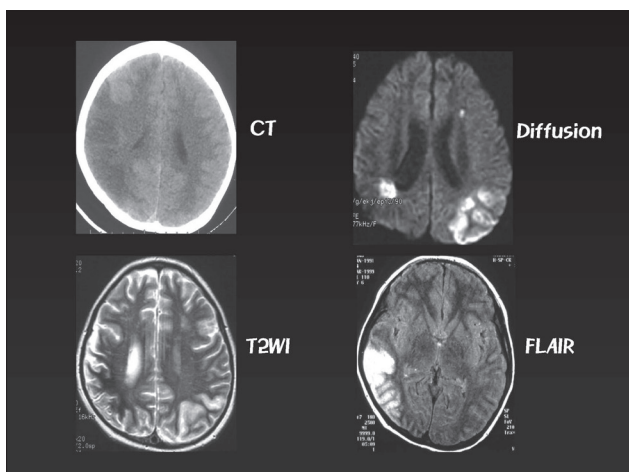
1. 병력
2. 뇌 CT
 - Type I, II : 정상
 - Type III, IV, V: 정상,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3. MRI : 특수 검사 및 전문의 판독
4. 혈관조영술, MR을 이용한 조영술
5. 뇌파검사
 - b. 혈류 검사 (SPECT)
7. MR 특수 검사: Diffusion, Perfusion, FLAIR image for infarction
9. PET, TCD

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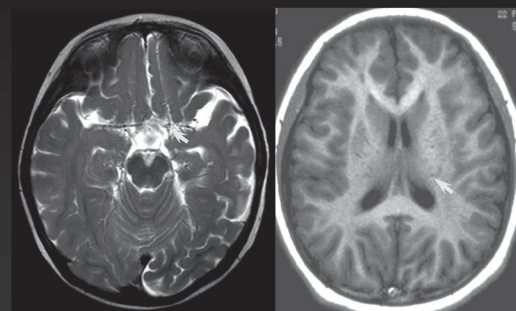
1. 일시적 어혈 증상 또는 뇌경색
 - 일시적 어혈을 유발하는 인자 : 술고 나서, 기침 후, 약기 불다가, 노래 부르다가, 뜨거운 음식 먹고 나서
2. 발작
3. 기타
 - 두통, 시력 저하, 감각 이상
 - 불수의 운동 (involuntary chorea movements)
 - 지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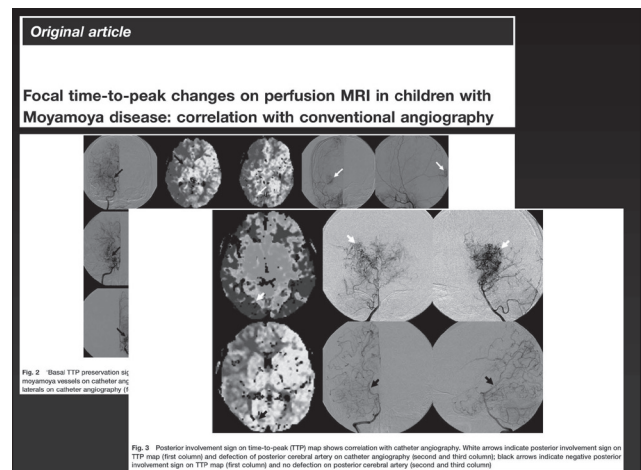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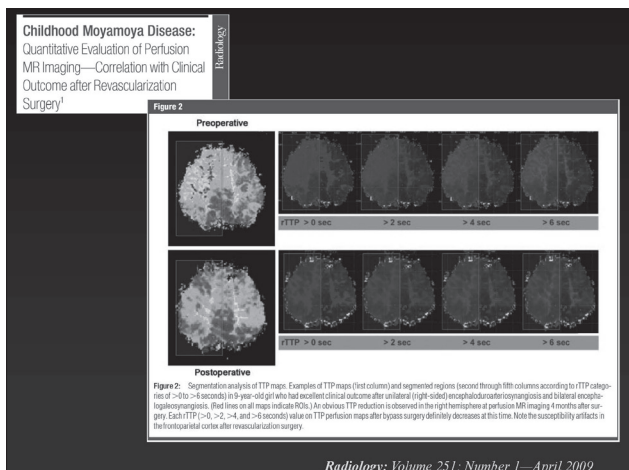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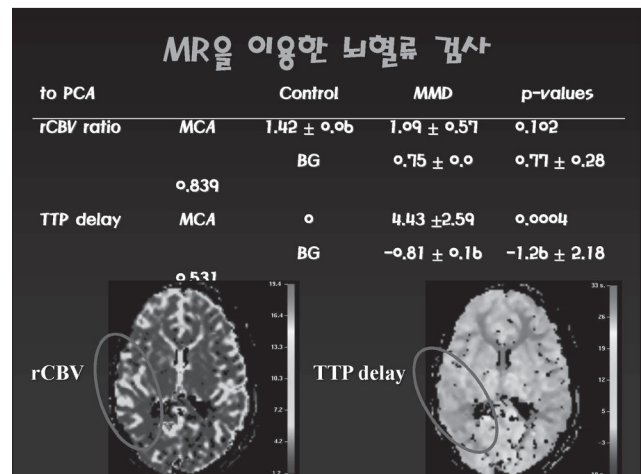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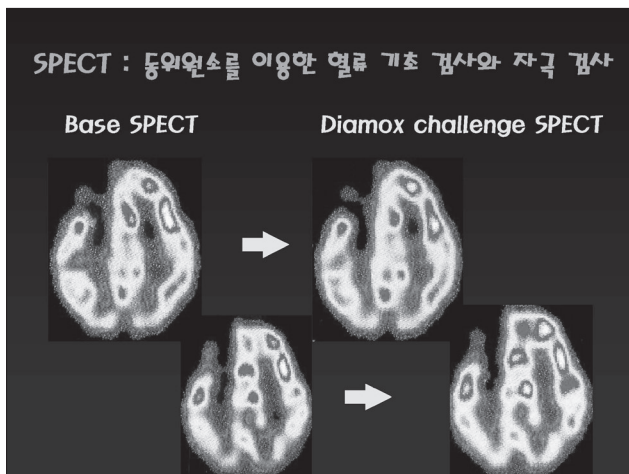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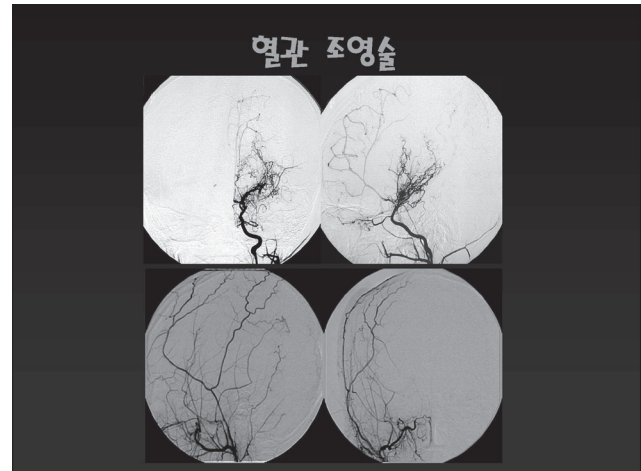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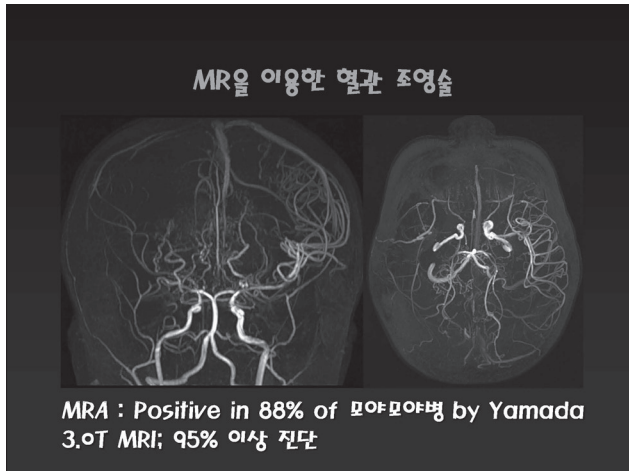
모야모야 환자에서 두통

- ✓ 아침에 많다.
- ✓ 구토 동반
- ✓ 편두통과 유사한 안구통을 동반
- ✓ 약에 효과가 실통치 않다.
- ✓ 수 시간 동안 지속된다.
- ✓ 조절이 매우 어렵다
- ✓ 수술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MR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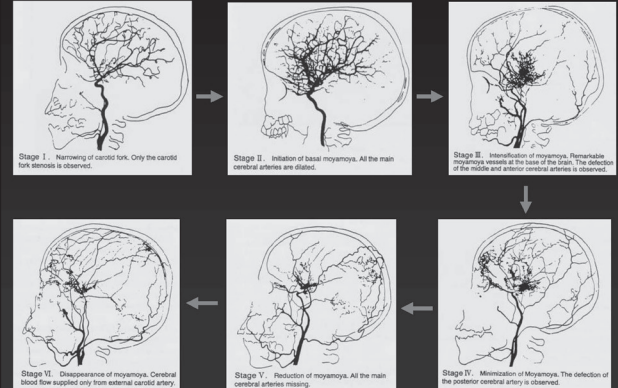




모야모야병의 병기 (Suzu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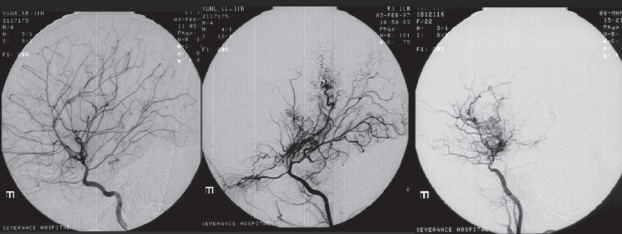
- 1기 : 내경동맥이 좁아지기 시작
- 2기 : 모야모야혈관 관찰
- 3기 : 모야모야혈관 증가
내경동맥 완전 폐쇄
- 4기 : 후뇌동맥 폐쇄 시작
- 5기 : 모야모야혈관이 줄어들음
- 6기 : 두피로 가는 혈관만으로 뇌혈류 공급

혈관 검사에서의 병기 (Suzuki stage)



모야모야병의 진행

Stage I 2년 Stage III 6개월 Stage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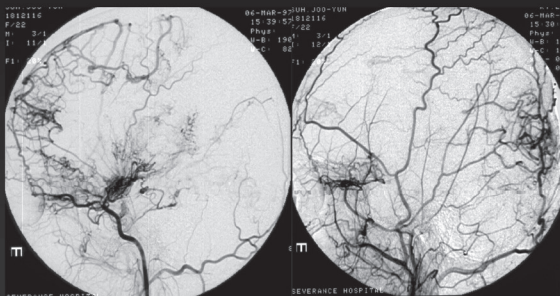
환자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가 다 다르다

뇌의 자연 측부 순환계

- A - 뇌혈관 사이의 측부 순환
- B - Circle of Willis을 통한 고통
- C - 뇌와 경막 사이의 측부 순환
- D - 경막의 중경막 동맥과의 고통
- E - 천측두 동맥, 후두동맥과의 고통
- F - 기능적 측부 순환
- G - 두개강 아래쪽에서 이루어지는 연결

증상없는 모야모야병

6기 모야모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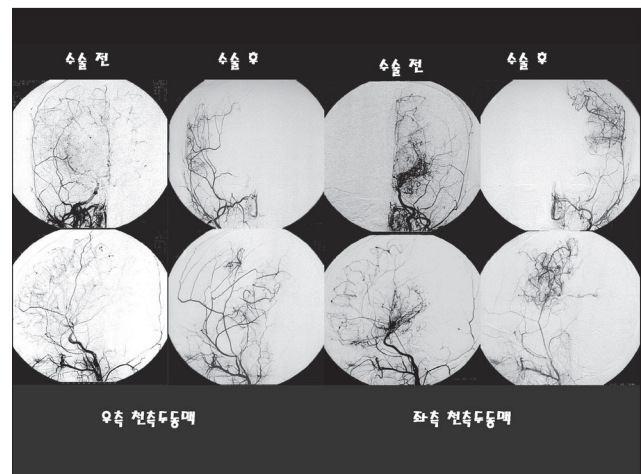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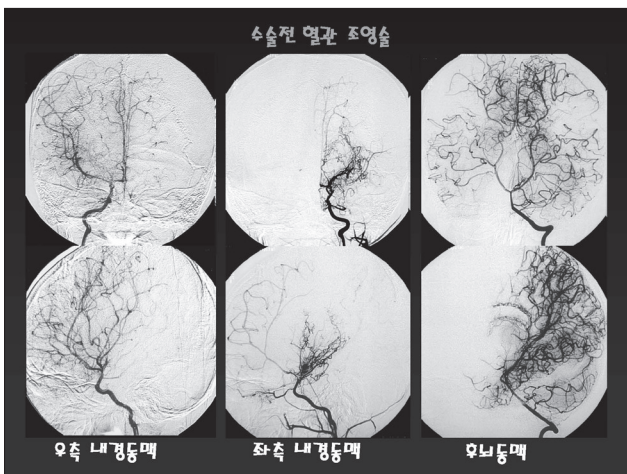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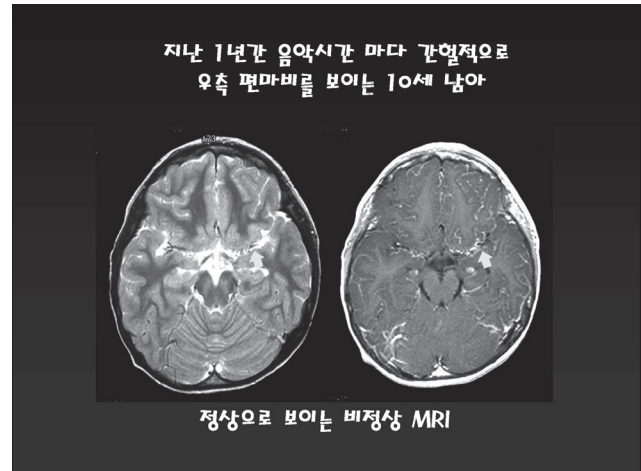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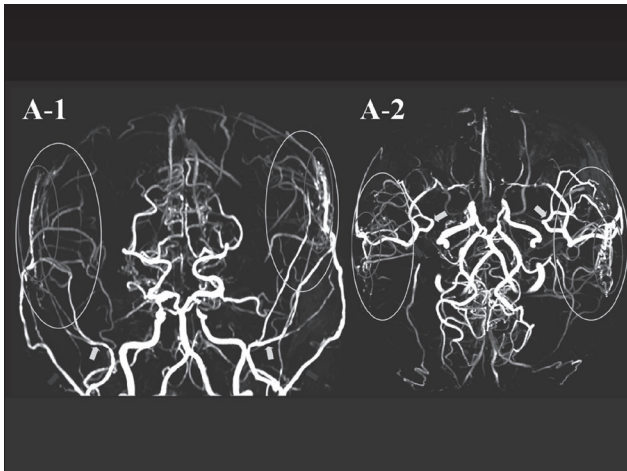


내경동맥

두피로 가는 혈관

모야모야병의 병기에 따른 수술 결정

- 1기 : 내경동맥이 좁아지기 시작
- 2기 : 모야모야혈관 관찰
- 3기 : 모야모야혈관 증가
내경동맥 완전 폐쇄
- 4기 : 후뇌동맥 폐쇄 시작 - 3차 수술??
- 5기 : 모야모야혈관이 줄어들음 - 수술 X
- 6기 : 두피로 가는 혈관만으로 뇌혈류 공급 - 수술 XXX



Pediatric Moyamoya Disease:
An Analysis of 410 Consecutive Cases

TABLE 3: Surgical Outcomes of 410 Children with Moyamoya Disease

Parameters	Number of Cases (%)
Overall clinical outcome (n = 410 patients)	
Excellent	270 (66)
Good	63 (15)
Fair	62 (15)
Poor	15 (4)
MRI data (n = 393 patients)	
Favorable	295 (75)
Unfavorable	98 (25)
Extent of revascularization of MCA territory (n = 526 hemispheres)	
Good	177 (34)
Fair	294 (56)
Poor	55 (10)
Extent of revascularization of ACA territory (n = 494 hemispheres)	
Good	216 (44)
Fair	219 (44)
Poor	59 (12)
Extent of revascularization of PCA territory (n = 29 hemispheres)	
Good	20 (69)
Poor	9 (31)
Perfusion MRI data (n = 185 patients)	
Favorable	121 (65)
Unfavorable	64 (35)
SPECT changes (n = 355 patients)	
Favorable	214 (60)
Unfavorable	141 (40)
Neuropsychological test (n = 106 patients)	
IQ ≥90	71 (67)
IQ <90	35 (33)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MCA = middle cerebral artery; ACA = anterior cerebral artery; PCA = posterior cerebral artery; SPECT =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IQ = intelligence quotient.

ANN NEUROL 2010;68:92-101

임상 증상에 따른 수술 결정

소아 : 뇌허혈성, 반복, 진행이 아주 빠름
성인 : 뇌졸중성, 1회성, 진행이 아주 느림

증상 유발 원인

- 1) 내경동맥의 폐쇄 속도
- 2) 측부 순환 형성 속도
- 3) 뇌의 혈류 필요량

편측 모야모야병

연구자	연령	성비	병력	검사	수술	병변	진행	기간
Kelly et al., 2006	178%	298	5	1 : 4	Normal (n=4) or only ACA abnormality (n=1)	2/5 (40%)	1/35 (8-19)	
Seol et al., 2006	34%	51	7	2 : 5	Normal (n=4) or only ACA abnormality (n=3)	2/7 (29%)	295 (27-32)	
Smith et al., 2008	14%	104	29	14 : 15	Normal (n=12) or some abnormalities (n=21) ?	8/29 (28%)	264 (12-102) ?	
Kim et al., 2010	129%	?	?	?	Normal (n=33) or ACA abnormality (n=20)	24/53 (45%)	23 (05-150)	
Park et al., 2011	154%	87	34	18/16	Normal (n=12) or ACA or MCA abnormal (n=22)	20/34 (58%)	173(73-348)	
Yeon et al., 2011	114%	99	45	24 : 21	Normal (n=15) or only ACA abnormality (n=30)	8/45 (18%)	313 (2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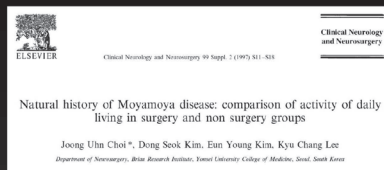
Table 1 Summary of patient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Total numbers	34
M/F ratio	18/16
Age (yrs)	4.1-19.9 (mean, 8.7 years)
Follow-up periods (months)	18.1-100 (mean, 35.3 months)
Family history	6 (17.6%)
Presentation symptoms	
Transient ischemic attack	23 (67.6%)
Infarction	4 (11.8%)
Headache	6 (17.6%)
Incidental	1 (3.0%)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gression group

Case	Sex	Age at diagnosis	Baseline abnormality	Family history	Initial grade and side	Progression
1	F	17			4R	+
2	M	9		+	3R	+
3	F	14	+		3R	
4	M	6			3R	
5	M	11			3L	
6	F	7	+	+	3L	
7	F	9		+	4R	
8	F	8			3R	+
9	M	8			3L	+
10	M	4	+		3L	
11	F	7	+		3R	+
12	F	5	+	+	3R	+
13	F	8	+		3R	+
14	F	8	+		3L	+
15	F	8	+		2R	
16	F	8	+	+	2L	
17	F	8	+	+	2L	
18	F	14	+	+	2R	
19	M	6	+		2L	
20	M	13	+		2L	
21	M	10	+		2L	
22	F	14	+	+	2L	

	Non-progression group	Progression group
Numbers	14 (41.2%)	20 (58.8%)
Age (mean)	4-20 (mean, 8.8 years)	4-17 (mean, 9.3 years)
Sex (M/F)	10/4 (2.5:1)	8/12 (1:1.5)
Initial ACA/MCA abnormality	7 (50%)	15 (75%)
Family history	0/6 (0%)	6/6 (100%)



추적기간 12 ~ 216 개월 (평균 67.2 개월)

수술 하지 않은 환자

Change of ADL	Age (years)	
	<6	6-15
Improvement	3	2 (1%)
No change	3	1
Aggravation	9	3
No. of patients	15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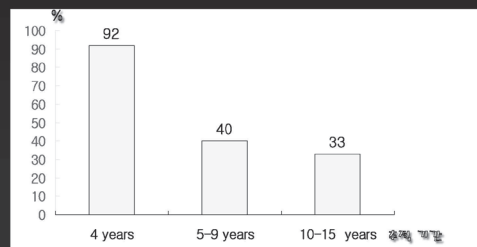
수술 받은 환자

Change of ADL	Age group (years)	
	<6	6-15
Improvement	13	4
No change	3	3
Aggravation	1	2
Total	1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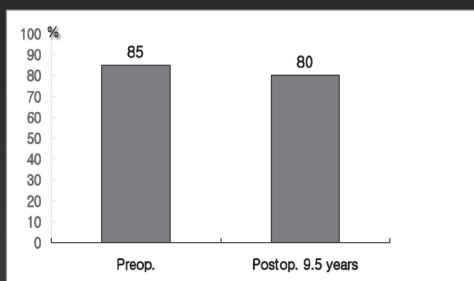


2기 쇼아 환자, 수술 받고 보존적 치료, 1971 - 1984

정상 IQ (> 86)



정상 IQ 비율
Matsushita Y et al, 1997



Comparison of Neuropsychological variables to Clinical and Non-clinical control group in Moyamoya Disease

76 children with MMD; boys 31; girls 45, mean age=8.04 years
46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oys 36; girls 10, mean age=8.43 years
34 Normal control group; boys 19; girls 10, mean age=7.85 years

	MMD (N=76)	ADHD Clinical Control (N=46)	Normal Control (N=34)	Sig.	Post Hoc
Intelligence					
Full Scale IQ	86.67	104.73	110.03	.000**	A < B, C
Verbal IQ	92.07	107.02	112.70	.000**	A < B, C
Performance IQ	80.71	100.93	103.91	.000**	A < B, C
Verbal Comprehension	95.73	109.32	108.00	.001**	A < B, C
Perceptual Organization	87.03	102.42	106.92	.000**	A < B, C
Concentration	84.30	97.27	111.92	.000**	A < B, C
Performance Speed	93.93	95.93	104.70	.019*	A < C
Memory					
MQ	87.48	97.72	101.75	.014*	A < B, C

Comparison of Neuropsychological variables to Clinical and Non-clinical control group in Moyamoya Disease

76 children with MMD; boys 31; girls 45, mean age=8.04 years
46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oys 36; girls 10, mean age=8.43 years
34 Normal control group; boys 19; girls 10, mean age=7.85 years

		MMD (N=76)	ADHD Clinical Control (N=46)	Normal Control (N=34)	Sig.	Post Hoc
Attention	Inattention	79.95	68.91	78.84	.363	
	Impulsivity	85.84	73.95	66.58	.118	
	Mean of Response Time	55.24	52.52	50.11	.452	
	Standard Deviation of Response Time	87.32	78.12	73.16	.264	
Executive Function	Perseverative errors	32.71	42.21	51.73	.164	
	Conceptualization	22.71	31.18	45.10	.070	
	Category completed	26.20	35.31	50.00	.006**	A < B, C
	Learn to Learn	18.86	34.76	42.10	.006**	A < B, C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Qualitative rate of Abnormal range in Moyamoya Disease.

		N (tot. N)	Mean(SD)	% in below average or abnormal range
Intelligence	Full Scale IQ	14 (76)	86.67	30.4
	Verbal IQ	9 (76)	92.07	19.6
	Performance IQ	15 (76)	80.72	32.6
Memory	MQ	10 (51)	87.48	32.3
Attention	Inattention	23 (68)	79.95	49.0*
	Impulsivity	21 (68)	85.84	44.7*
	Mean of Response Time	13 (63)	55.24	39.4
	SD of Response Time	26 (68)	87.32	55.3*
Executive Function	Perseverative errors	6 (51)	32.71	28.6
	Conceptualization	12 (51)	22.71	57.1*
	Category completed	6 (51)	26.19	28.6
	Learn to Learn	11 (51)	18.86	52.4*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Neurocognitive Profiles of Children with Moyamoya Disease before and after Surgical Intervention

J. Hwang, L. Kim, J. Hwang, P. Kim, C. Chang, W. Kim, B. Kim, H. Cho, M. Kim, S. Kim, S. Kim, S. Kim

Table 3.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scores on various neurocognitive tests (means $\pm$ SD)

	Preoperative (n = 65)	Postoperative (n = 65)	Paired t test
Intellectual functioning			
FSIQ	107.2 $\pm$ 14.2	108.1 $\pm$ 12.7	-0.79 (0.44)
VIQ	107.8 $\pm$ 13.2	105.8 $\pm$ 12.7	1.59 (0.18)
PIQ	105.3 $\pm$ 16.1	109.0 $\pm$ 13.11	-2.76 (0.01)

- 수술 전 뇌경색이 없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수술로 인한 혈류 개선이 인지 기능 개선이나 유지에 도움이 된다.
- 병이 진행하기 전에 적극적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Neuropsychological impacts of indirect revascularization for pediatric moyamoya disease

	Pre (SD) (n = 55)	Post (SD) (n = 55)	df	Paired t test	p value
K-WISC-III					
PIQ	98.9 (15.3)	100.3 (17.1)	54	-1.075	.287*
VIQ	103.8 (13.1)	100.8 (13.2)	54	-.285	.777
FSIQ	93.5 (17.6)	100.9 (18.8)	54	-4.475	.000*
Verbal comprehension (VC)	110.0 (11.6)	108.0 (14.9)	52	-.428	.678
Perceptual organization (PO)	95.6 (18.3)	100.7 (14.2)	52	-5.140	.000*
Freedom from distractibility (FD)	95.6 (15.6)	98.2 (14.1)	52	-1.536	.130
Processing speed (PS)	99.4 (19.6)	99.0 (18.5)	52	.203	.840
Block design (BD)	93.3 (17.7)	105.4 (14.3)	45	-4.021	.000
Verbal delayed recall	9.3 (3.4)	9.4 (2.8)	38	-.190	.870
Verbal delayed recognition	8.9 (2.7)	10.3 (1.9)	37	-2.972	.005
Visuospatial construction	9.9 (3.9)	11.2 (1.6)	38	-2.124	.040
Visual immediate recall	9.4 (3.9)	11.2 (1.9)	38	-3.147	.002
Visual delayed recall	9.6 (4.2)	11.2 (1.9)	37	-2.148	.038
Children's Color Test (CCT)					
CCT1 (s)	25.4 (14.9)	20.0 (9.6)	49	3.836	.000
CCT2 (s)	57.3 (26.2)	45.1 (25.6)	49	3.689	.001
CCT1 T score	46.6 (12.7)	50.6 (11.0)	49	-2.307	.025
CCT2 T score	46.3 (13.1)	51.2 (12.4)	49	-2.113	.040
Wechsler Color Sorting Test (WCST)					
Perseverative errors	49.8 (11.5)	56.3 (9.1)	22	-3.284	.003
Nonperseverative errors	45.4 (12.8)	57.0 (8.0)	22	-4.729	.000
Conceptual level responses	47.0 (11.1)	58.3 (10.6)	22	-5.043	.000
Category completed	4.3 (2.3)	5.7 (1.1)	22	-3.364	.003
Learning to learn	1.8 (2.4)	1.6 (1.9)	3	-.161	.883
Ratio to complete 1st category	13.0 (6.6)	15.1 (5.4)	9	-1.276	.234
Failure to maintain set	8.0 (1.1)	9.1 (1.1)	20	-.136	.741
Advanced Test of Attention (ATA)—visual only administered					
Inattention	68.6 (19.6)	61.2 (15.4)	46	2.437	.019
Impulsivity	71.9 (21.2)	61.1 (21.5)	49	4.029	.000
Reaction time (RT)	55.9 (10.3)	53.2 (13.2)	49	.328	.745
RT SD	65.4 (21.1)	57.2 (16.2)	49	2.253	.029

소아 모야모야병 요약

-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약물 치료는 없다.
- 치료하지 않은 소아 환자는 혈관 상태나 임상 상태가 결국은 악화한다.
- 5년 내에 60-70%의 소아 환자는 증상 진행을 보인다.
- 치료를 하지 않으면 소아에서 결과는 대체로 나쁘다.
- 치료 당시의 신경학적 상태가 치료의 장기 결과를 반영한다.
-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Diagnostic Image of Moyamoya Disease: Radiologic Image & Differential Diagnosis of Moyamoya Disease

김용배

연세대

Moyamoya disease (MMD) can be defined as a progressive steno-occlusive disease at terminal portions of the bilateral internal carotid arteries and their proximal branches with prominent collateral artery formation. Prompt diagnosis and accurate assessment could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gnosis of MMD. To date, different imaging modalities has been used for diagnosis of MMD, including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DSA),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ingle-photon emission CT (SPECT),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All of these imaging modalities are useful in certain situation where the specific information of MMD is in need upon their quantitative or qualitative evaluation. Furthermore, recent reveal of superiority of bypass surgery in hemorrhagic MMD may provide us an upgraded understanding about the impact of angiographic feature and hemorrhagic site on the prognosis of hemorrhagic MMD.

Differential diagnoses of MMD may be including cerebral atherosclerosis, autoimmune diseases, meningitis, cerebrovascular damage after head injury, and many anomalies of the intracranial arteries. Additionally, radiation therapy, neurofibromatosis type 1, Down's syndrome, sickle cell disease, and even autoimmune diseases may develop a striate collateral network of the proximal MCA with a web-like pattern. Among them, an anomaly of the middle cerebral artery (MCA) is well mimicking MMD. Among the anomalies of the MCA, rete MCA (R-MCA) is a web-like anomaly of the MCA that does not coalesce and forms a prominent, large single branch from the plexiform vessels in the fetal stage.

In this review, the usefulness of each diagnostic modality are conveyed and discussed to estimate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gnosis of MMD so that the most suitable strategies could be yield for each individual patient. And, by reviewing different, moyamoya-mimicking disease, we hope valuable insights could be provided for vascular neurosurgeons to avoid misdiagnosis and unnecessary treatments.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SKEN-KSCVS 합동 연수강좌



Session II. Moyamoya Disease: Treatment

좌장: 성재훈 (가톨릭대), 고현송 (충남대)

1. Bypass strategies for Moyamoya disease: Risk and incidence of complication & avoidance of complication from revascularization surgery

연제영 (성균관대)

2. Surgical role in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김정은 (서울대)

3. Endovascular treatment for targeted embolization in Moyamoya disease with hemorrhagic manifestation

반승필 (서울대)

Bypass strategies for Moyamoya disease: Risk and incidence of complication & avoidance of complication from revascularization surgery

연제영

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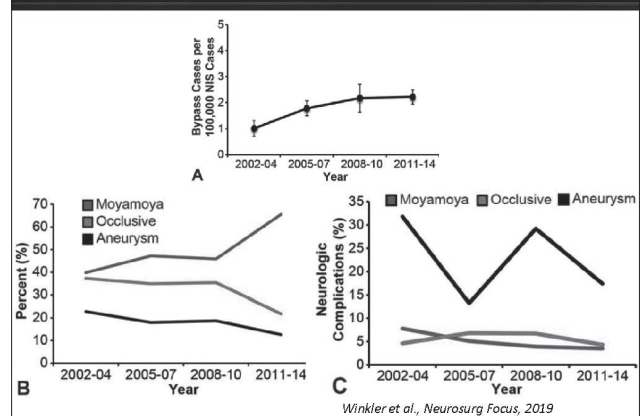
2019.9.7. SKEN-KSCVS 합동연수강좌 11:00-11:25

Bypass Strategies for Moyamoya Disease: Risk and Incidence of Complication and its Avoidance

Je Young Yeon

Department of Neuro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Trends in Bypass Surgery (USA, 2002-2014)



Bypass indications and Level of Evidence

- Flow-augmentation for **ischemic moyamoya disease**
 - level of evidence 4; grade of recommendation C
- Flow-augmentation for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 level of evidence 1B; grade of recommendation A
- Flow-augmentation for **medially refractory carotid occlusion**
 - level of evidence 5; grade of recommendation D

Esposito et al., Acta Neurochir, 2018

Hemorrhagic MMD – JAM trial

- Multicentered,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nducted by 22 institutes in Japan
- Intracranial hemorrhage within the preceding year
- Conservative care or bilateral EC-IC direct bypass
- Rebleeding rate for 5 years ($P=0.042$ in the K-M analysis)
 - 5 patients in the surgical group (11.9%), 2.7%/year
 - 12 in the nonsurgical group (31.6%), 7.6%/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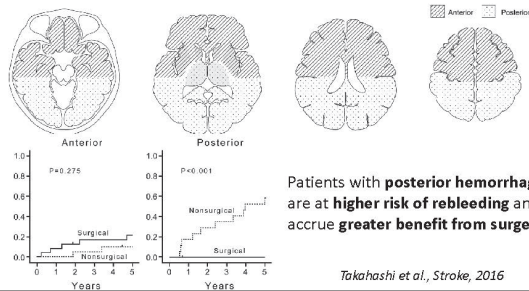
	Surgical Group (n=42)		Nonsurgical Group (n=36)		Hazard Ratio (95% CI)	P Value
	n	Ratio, %	n	Ratio, %		
Primary end point	6	14.3	13	34.2	0.381 (0.148–1.029)	0.057
Recurrent bleeding	5	11.9	12	31.6	0.355 (0.125–1.009)	0.052
Completed stroke	1	2.4	0	0.0	...	...
Crescendo TIA (bypass required)	0	0.0	1	2.6	...	...

* Ischemic stroke or TIA : 0.5%/year in each group

Miyamoto et al., Stroke, 2014

Hemorrhagic MMD – JAM trial

- Analysis in the Japan Adult Moyamoya (JAM) Trial
- Hemorrhagic site classified as either anterior or posterior
- Diffuse IVH or SAH → anterior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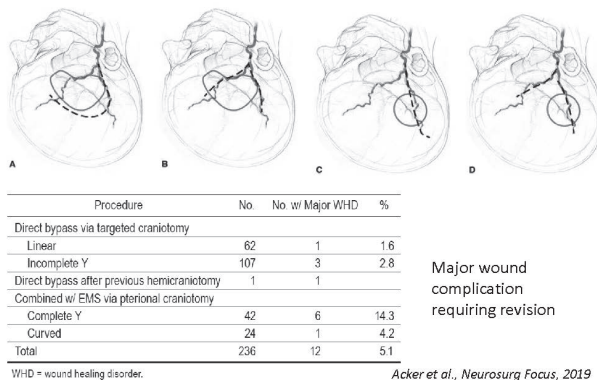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stroke

- Meta-analysis of 8 studies encompassing 1649 patients
- Preoperative ischemic event
- PCA involvement
- Diabe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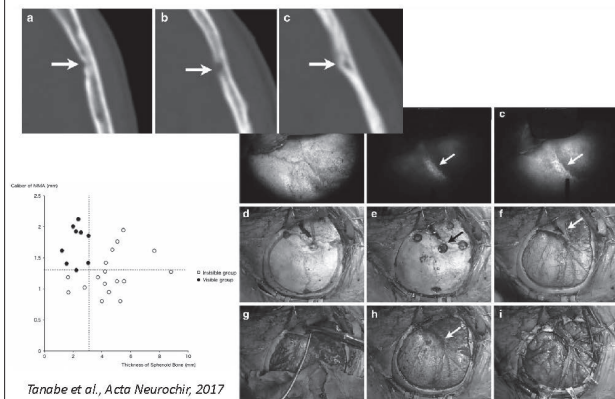
Preoperative possible risk factors	Number of articles	I^2	P value for heterogeneity	Pooled OR(95%CI)	P for pooled results	P for Begg's test
Ischemic events	5	74.4%	0.001 [*]	1.40 (1.02-1.92)	0.039 [*]	0.230
PCA involvement	5	83.4%	0.000 [*]	2.64 (1.17-5.95)	0.019 [*]	0.806
Suzuki stage	4	32.8%	0.215	1.20 (0.97, 1.49)	0.101	0.734
Surgery type (D8 as reference)	4	0.0%	0.601	1.12 (1.03, 1.33)	0.017 [*]	0.806
Age	5	38.2%	0.167	1.02 (1.00, 1.04)	0.090	0.806
Male sex	4	0.0%	0.595	1.16 (0.75-1.82)	0.504	1.000
Diabetes	3	5.9%	0.345	4.02 (1.59, 10.16)	0.003 [*]	0.296
Hypertension	2	0.0%	0.494	0.70 (0.31, 1.58)	0.392	-

Wei et al., BMC Neurolog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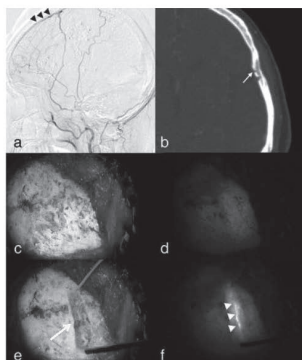
Skin incision and wound complication



ICG angiography before craniotomy



ICG angiography during craniot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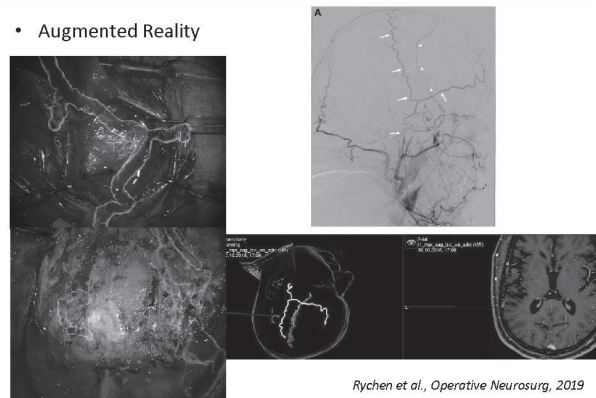
drilled the compact bone out with a cutting burr around the possible MMA course, which was estimated from the distance from the parietal branch of the superior temporal artery (Fig. 1e).

Then, the ICG was injected again, which showed the MMA course clearly (Fig. 1f). We could carry out a craniotomy posteriorly to the MMA and made an STA-MCA direct bypass.

Kimura et al., Acta Neurochir, 2017

Preoperative planning

- Augmented Reality



Surgical role in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김정은

서울대

Surgical Role in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Jeong Eun Kim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urgery for MMD in SNUH

- 2003-01 ~ 2019-07
- 647 hemisphere in 499 patients
- Method
 - Direct (combined) : 538
 - Indirect only : 109
- Initial presentation
 - Ischemic only : 485
 - Hemorrhagic only : 117
 - Ischemic + hemorrhagic : 34
 - Others : 11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atural History and Risk Factor of Recurrent Hemorrhage in Hemorrhagic Adult Moyamoya Disease

Kang Min Kim, MD*
Jeong Eun Kim, MD, PhD*
Woo-Sang Cho, MD*
Hyun-Seung Kang, MD, PhD*
Young-Je Son, MD*
Moon-Hae Han, MD, PhD*
Chang-Wan Oh, MD, PhD

*Department of Neurosurgery, Ka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cheon,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Correspondence:
Jeong Eun Kim, MD, PhD,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51 Daehak-ro, Jongno-gu,
Seoul 05150, Republic of Korea.
E-mail: eun@snuh.or.kr

Accepted: April 4, 2016
Accepted: March 2, 2017
Published Online: April 15, 2017

Copyright © 2017 by the
Korean Society of Neurological Surgeons

BACKGROUND: Recurrent hemorrhage is a serious neurosurgical problem in adult moyamoya disease (MMD) patients.

OBJECTIVE: To find the natural history and risk factors of recurrent hemorrhage in cases of adult hemorrhagic MMD.

METHODS: One hundred seventy-six adult MMD patients presenting with hemorrhage were enrolled. Patients' medical records and radiological image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tures of recurrent hemorrhage, and related risk factors were analyzed. Poor neurological outcome was defined as a score on the modified Rankin Scale of 4 to 6. The hemisphere in which the initial hemorrhage occurred was considered as the affected one. The mean follow-up duration was 83 months.

RESULTS: The overall estimated rate of recurrent hemorrhage was 16.9% (95% confidence interval, 11.3%-24.8%) at 5 years and 26.3% (95% confidence interval, 18.5%-36.4%) at 10 years after the initial episode of hemorrhage. The affected hemisphere showed a higher recurrent hemorrhage rate (10.7% vs. 8.3% hemisphere at 5 years, $P = .09$) after conservative treatment. As a result of recurrent hemorrhage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poor neurological outcome increased (first episode: 13.8%, second: 37.5%, third: 40.0%, fourth: 100%). The presence of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 = .05$, hazard ratio = 3.32) and bilateral MMD ($P = .05$, hazard ratio = 4.35) had a marginal significance for recurrent hemorrhage. Eight ischemic strokes (4.5%) including 4 postoperative infarctions were identified, and all ischemic strokes were minor stroke.

CONCLUSION: During the follow-up period, recurrent hemorrhagic events continued to increase and deteriorated the patients' neurological conditions. The presence of intraventricular hemorrhage was a significant risk factor of recurrent hemorrhage.

KEY WORDS: Moyamoya disease, Hemorrhage, Risk factors, Natural history

Neurosurgery 83:289-296, 2017

DOI: 10.1227/NEU.0000000000001000

www.neurosurgeryonli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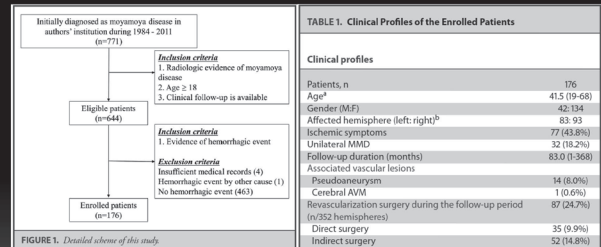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im KM, et al. Neurosurgery 2017



Recurrent Hemorrhage in Hemorrhagic Adult Moyamoya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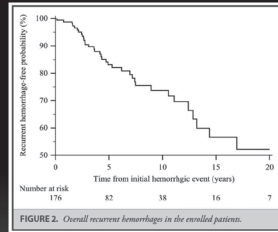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ecurrent Hemorrhage in Hemorrhagic Adult Moyamoya Disease

- Mean follow-up duration
 - 83 months (1-368)
- Recurrent hemorrhage
 - 45 times
- Recurrent hemorrhage rate
 - 16.9%/person at 5 year (3.4%/person-year)
 - 26.3%/person at 10 years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Recurrent Hemorrhage in Hemorrhagic Adult Moyamoya Disease

- Neurologic outcomes of patients

TABLE 2. Neurological Outcomes of Patients with Hemorrhagic Events at the Time of the Last Clinical Follow-up (n = 176)

No. of hemorrhagic event	No. of patients	No. of mRS ≥ 4 cases (%)	Mortality (%)
1	138	19(13.8)	1(0.7)
2	32	12(37.5)	4(12.5)
3	5	2(40.0)	1(20.0)
4	1	1(100.0)	1(100.0)

No., number; mRS, modified Rankin Scal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Recurrent hemorrhage in Hemorrhagic adult Moyamoya disease

- Risk factors of recurrent hemorrhages
 - IVH
 - Bilateral M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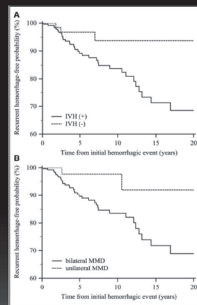
TABLE 4. Risk Factors of Recurrent Hemorrhage in Moyamoya Disease (Hemispheric Analysis)

	Univariate analysis* (P)	Multivariate analysis* (P)	Hazard ratio(95% CI)
Affected hemisphere	.06	.09	1.77(0.91-3.44)
Intraventricular hemorrhage	.04	.05	3.32(1.01-10.90)
Pseudoaneurysm	.04	.22	2.14(0.63-7.23)
Bilateral MMD	.04	.05	4.15(1.00-17.27)

MMD, moyamoya disease; CI, confidence interval.

*Kaplan-Meier analysis, log-rank test.

*Cox regression analysis.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Revascularization Surgery During Follow-up

- 87 / 320 hemispheres (27%)

	combined	Indirect only
Ischemic-hemorrhagic	5	12
Hemorrhagic at first	30	40

- Recurrent hemorrhage after surgery
 - 1 in 30 combined
 - 5 in 40 indirect only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Accompanying Lesions

- Pseudoaneurysm (n=14)
 - glue embolization : 5
 - conservative management : 9
 - Spontaneous regression : 4
 - Recurrent hemorrhage : 1
- 1 AVM : Gamma knife radiosurgery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Ischemic Strokes After Initial Hemorrhage

- 8 ischemic strokes
 - 4 in observation group
 - 4 in surgery group (within 30 days after surgery) : 5.7%
 - All 8 ischemic strokes : minor stroke
 - Not disabling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JAM (Japanese Adult Moyamoya) Trial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JAM Trial

-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 Hypothesis : EC-IC bypass was beneficial for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 Inclusion criteria
 - Intracranial hemorrhage within 12 months
 - Age : 16 – 65
 - mRS : 0-2, independent in daily life
 - Bilateral carotid lesions (unilateral excluded)
 - Staged bilateral surgery : STA-MCA anastomoses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JAM Trial

- Miyamoto S, et al. *Stroke* 2014
- Takahashi JC, et al. *Stroke* 2016
- Funaki T, et al. *J Neurosurg* 2018 (1)
- Funkaki T, et al. *J Neurosurg* 2018 (2)
- Fujimura M, et al. *J Neurosurg* 2018
- Funaki T, et al. *J Neurosurg* 2019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Effects of Extracranial-Intracranial Bypass for Patients With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Results of the Japan Adult Moyamoya Trial

Susumu Miyamoto, MD, PhD; Takashi Yoshimoto, MD, PhD;
Nobuo Hashimoto, MD, PhD; Yasushi Okada, MD, PhD; Ichiro Tsuji, MD, PhD;
Teiji Tominaga, MD, PhD; Jyoji Nakagawara, MD; Jun C. Takahashi, MD, PhD;
on behalf of the JAM Trial Investigators

Miyamoto S, et al. *Strok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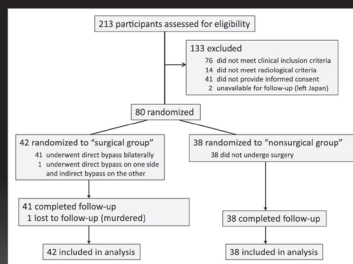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Effects of Extracranial-Intracranial Bypass for Patients with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 2001-01 ~ 2008-06
- 80 patients
 - Surgical 42
 - Nonsurgical 38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Effects of Extracranial-Intracranial Bypass for Patients with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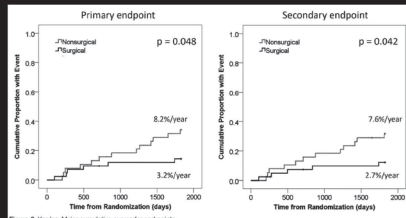
- Primary end points : all adverse event
 - Rebleeding attack
 - Completed stroke resulting in significant morbidity
 - Significant morbidity or mortality from any medical cause
 - Requirement for bypass surgery for a nonsurgical patients
- Secondary end point
 - Rebleeding attack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Effects of Extracranial-Intracranial Bypass for Patients with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 Perioperative complications
 - 42 patients for 84 surgical procedures
 - 8 cases (9.5%)
 - Symptoms of local hyperperfusion : 3
 - TIA, Seizure, Local vasogenic edema, Scalp sore, Tear of a subcutaneous drainage tub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Effects of Extracranial-Intracranial Bypass for Patients with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 Conclusion
 - Statistically marginal
 - Direct bypass surgery for adult patients with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 Reduces the rebleeding rate
 - Improves a patient's prognosis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Significance of the Hemorrhagic Site for Recurrent Bleeding Prespecified Analysis in the Japan Adult Moyamoya Trial

Jun C. Takahashi, MD, PhD; Takeshi Funaki, MD, PhD; Kiyohiro Houkin, MD, PhD; Tooru Inoue, MD, PhD; Kuniaki Ogasawara, MD, PhD; Jyoji Nakagawara, MD, PhD; Satoshi Kuroda, MD, PhD; Keisuke Yamada, MD, PhD; Susumu Miyamoto, MD, PhD; on behalf of the JAM Trial Investigators*

Takahashi J, et al. *Stroke* 2016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Significance of the Hemorrhagic Site for Recurrent Blee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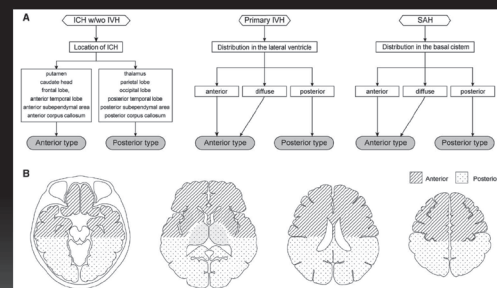


Figure 1. A, Flow diagram showing the algorithm for classifying hemorrhagic sites. B, Schematic illustrations showing topographical definitions of hemorrhagic sites. ICH indicates intracerebral hemorrhage;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and SAH, subarachnoid hemorrhag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Significance of the Hemorrhagic Site for Recurrent Bleeding

- Primary end points
 - All adverse effect including rebleeding attack
- Secondary end point
 - Rebleeding attack

Table 1. Primary End Point in Subgroups

Stratification Variable	Allocation		P Interaction
	Nonsurgical (n=38)	Surgical (n=42)	
Hemorrhagic site			0.013
Anterior			
No. of participants	21	24	
Primary end point (no. [%])	3 (14.3)	5 (20.8)	
HR (95% CI)	1.00 (reference)	1.62 (0.39–6.79)	
Posterior			
No. of participants	17	18	
Primary end point (no. [%])	10 (58.8)	1 (5.6)	
HR (95% CI)	1.00 (reference)	0.07 (0.01–0.55)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Significance of the Hemorrhagic Site for Recurrent Bleeding

- HR for surgical group relative to the nonsurgical group
 - 0.07 for the posterior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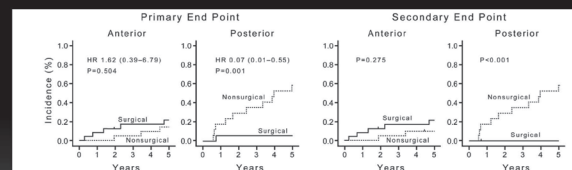


Figure 2. Kaplan-Meier estimates of the incidence of primary and secondary end points by hemorrhagic site. $P=0.013$ for interaction in the primary end point. Calculation of the hazard ratio (HR) and interaction P value was impossible for the secondary end point.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Significance of the Hemorrhagic Site for Recurrent Bleeding

- Incidence of primary & secondary endpoints within nonsurgical group
 -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posterior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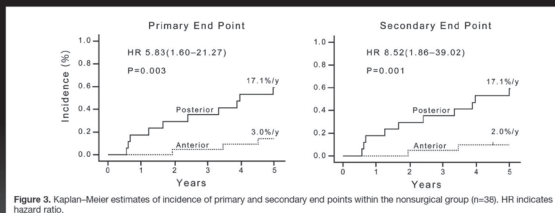


Figure 3. Kaplan-Meier estimates of incidence of primary and secondary end points within the nonsurgical group (n=38). HR indicates hazard ratio.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Significance of the Hemorrhagic Site for Recurrent Bleeding

Conclusion

- Patients with posterior hemorrhage
 - higher risk of rebleeding
 - greater benefit from surgery.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JNS

CLINICAL ARTICLE

J Neurosurg 128:777-784, 2018

Angiographic features of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with high recurrence risk: a supplementary analysis of the Japan Adult Moyamoya Trial

Takeshi Funaki, MD, PhD,¹ Jun C. Takahashi, MD, PhD,² Kiyohiro Houkin, MD, PhD,³ Satoshi Kuroda, MD, PhD,⁴ Shigekazu Takeuchi, MD, PhD,⁴ Miki Fujimura, MD, PhD,⁴ Yasutake Tomata, PhD,⁷ and Susumu Miyamoto, MD, PhD,¹ on behalf of the JAM Trial Investigators

Funaki T, et al. J Neurosurg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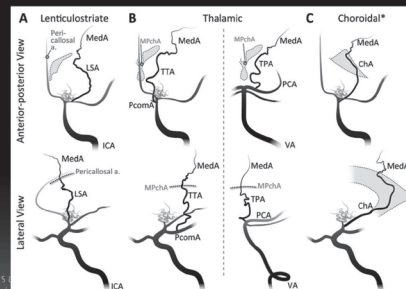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Angiographic Features of Hemorrhagic MMD with High Recurrence Risk

Collaterals in Moyamoya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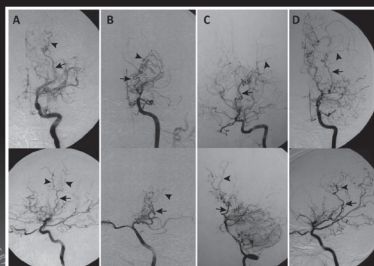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Angiographic Features of Hemorrhagic MMD with High Recurrence Risk

Collaterals in Moyamoya Disease

Lenticulostriate Thalamic Choroidal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Angiographic Features of Hemorrhagic MMD with High Recurrence Risk

Collaterals	Hemorrhage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Posterior	Anterior		
Lenticulostriate	Yes	9	12	
	No	24	30	
Thalamic	Yes	11	11	
	No	22	31	
Choroidal	Yes	20	15	
	No	13	27	
PCA involvement	Yes	15	9	
	No	18	33	

FIG 4. Graphic display of univariate ORs for posterior hemorrhage.

TABLE 2. Multivariate-adjusted ORs for posterior hemorrhage

Type of Anastomosis	Crude			Multivariate Adjustment*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Lenticulostriate	0.94	(0.34–2.59)	0.901	0.83	(0.26–2.59)	0.743
Thalamic	1.41	(0.52–3.82)	0.501	1.03	(0.34–3.08)	0.963
Choroidal	2.77	(1.08–7.10)	0.034	2.66	(1.00–7.07)	0.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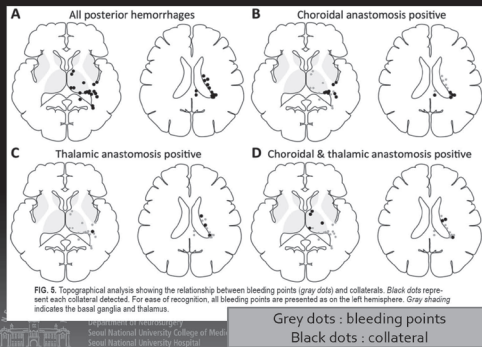
* The multivariate adjustment model was adjusted for sex, age (continuous variable), and PCA involvement (yes/no).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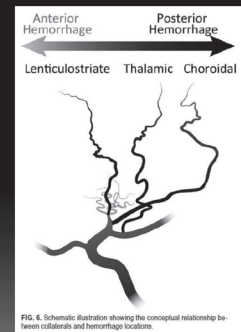
SNUH

Angiographic Features of Hemorrhagic MMD with High Recurrence Risk



Angiographic Features of Hemorrhagic MMD with High Recurrence Risk

- Choroidal anastomosis and PCA involvement
 - Characteristics of Posterior hemorrhage
- Choroidal anastomosis
 - Potential source of posterior hemorrhage at high risk of reblee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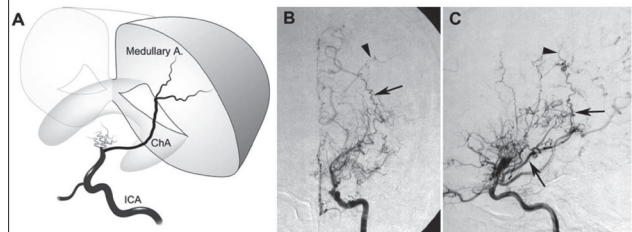


High rebleeding risk associated wit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in hemorrhagic moyamoya disease: analysis of a nonsurgical cohort in the Japan Adult Moyamoya Trial

Takeshi Funaki, MD, PhD,¹ Jun C. Takahashi, MD, PhD,² Kiyohiro Houkin, MD, PhD,³ Satoshi Kuroda, MD, PhD,⁴ Shigekazu Takeuchi, MD, PhD,⁴ Miki Fujimura, MD, PhD,⁴ Yasutake Tomata, PhD,⁷ and Susumu Miyamoto, MD, PhD,¹ on behalf of the JAM Trial Investigators

Funaki T, et al. *Stroke* 2018

High Rebleeding Risk Associated wit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in Hemorrhagic MMD



High Rebleeding Risk Associated wit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in Hemorrhagic M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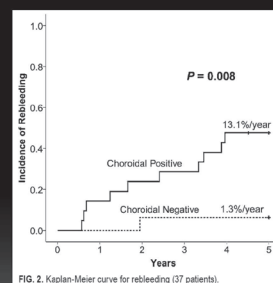
- 37 patients – nonsurgical arm
 - Choroidal collaterals (+) : 21

TABLE 1. Baseline variables in 37 moyamoya patients in the nonsurgical group

Variable	Choroidal Anastomosis		p Value
	Positive	Negative	
No. of patients	21	16	
Mean age in yrs ± SD	39.9 ± 13.4	43.4 ± 11.1	0.405
Female	17 (81.0)	10 (62.5)	0.274
Hypertension	4 (19.0)	3 (18.8)	1.000
Diabetes mellitus	1 (4.8)	1 (6.3)	1.000
Hyperlipidemia	1 (4.8)	1 (6.3)	1.000
Hx of ischemic event	7 (33.3)	3 (18.8)	0.461
Hx of hemorrhagic stroke	2 (9.5)	2 (12.5)	1.000
PCA involvement	9 (42.9)	3 (18.8)	0.121

Hx = history.
Values expressed as number (%) of patients, unless otherwise indicated.

High Rebleeding Risk Associated wit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in Hemorrhagic MMD



- Rebleeding
 - 11 of 37 cases
 - 7.2% per year
- Rebleeding rate
 - Choroidal collateral (+)
 - 5-year → 47.6%
 - Choroidal collateral (-)
 - 5-year → 6.5%

High Rebleeding Risk Associated wit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in Hemorrhagic MMD

- Longitudinal cohort analysis from JAM trials
- Choroidal collaterals in hemorrhagic MMD
 - Bleeding source with high risk for hemorrhagic recurrence
 - Predictor of rebleeding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JNS

CLINICAL ARTICLE
J Neurosurg 130:1453–1458, 2019

Intrinsic development of choroidal and thalamic collaterals in hemorrhagic-onset moyamoya disease: case-control study of the Japan Adult Moyamoya Trial

Miki Fujimura, MD, PhD,¹ Takeshi Funaki, MD, PhD,² Kiyohiro Houkin, MD, PhD,³
Jun C. Takahashi, MD, PhD,⁴ Satoshi Kuroda, MD, PhD,⁴ Yasutake Tomata, PhD,⁴
Teiji Tominaga, MD, PhD,¹ Susumu Miyamoto, MD, PhD,² on behalf of the Japan Adult Moyamoya
Trial Investigators

Fujimura M, et al. J Neurosurg 2018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Intrinsic Development of Choroidal and Thalamic Collaterals in Hemorrhagic-onset MMD

- To identify the angiographic features
 - Hemorrhagic-onset versus Ischemic-onset

TABLE 1. Angiographic scoring of lenticulostriate, thalamic, and choroidal anastomosis in MMD

Collateral	Grade 0	Grade 1	Grade 2
Lenticulostriate	No dilation, no extension	Dilation/extension below the level of the pericallosal artery	Dilation/extension beyond the level of the pericallosal artery
Thalamic (perforator)	No dilation, no extension	Dilation/extension below the level of the MPChA	Dilation/extension beyond the level of the MPChA
Choroidal	No dilation, no extension	Dilation/extension below the level of the lateral ventricle	Dilation/extension beyond the level of the lateral ventricle

MPChA = medial posterior choroidal artery.

Grade 2 : positive angiographic indicator of choroidal anastomosis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Intrinsic Development of Choroidal and Thalamic Collaterals in Hemorrhagic-onset M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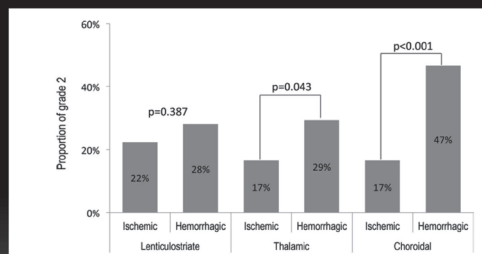


FIG. 2. The prevalence of high angiographic score (grade 2) according to each collateral patter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Figure is available in color online only.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Intrinsic Development of Choroidal and Thalamic Collaterals in Hemorrhagic-onset MMD

TABLE 3. Proportions (adjusted odds ratios) of grade 2 MMD in each collateral pattern

Collateral	Grade ≤1		Grade 2		Crude		Sex/Age Adjusted	
	No.	%	No.	%	OR	95% CI	OR	95% CI
Lenticulostriate anastomosis								
Ischemic	80	77.7%	23	22.3%	1.00	Reference	1.00	Reference
Hemorrhagic	54	72.0%	21	28.0%	1.35	0.68–2.68	0.387	1.88 0.89–3.96
Thalamic anastomosis								
Ischemic	86	83.5%	17	16.5%	1.00	Reference	1.00	Reference
Hemorrhagic	53	70.7%	22	29.3%	2.10	1.02–4.31	0.043	2.18 1.03–4.60
Choroidal anastomosis								
Ischemic	86	83.5%	17	16.5%	1.00	Reference	1.00	Reference
Hemorrhagic	40	53.3%	35	46.7%	4.43	2.22–8.83	<0.001	4.74 2.31–9.72

Overall 178 hemispheres (n = 103 ischemic and 75 hemorrhagic).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Intrinsic Development of Choroidal and Thalamic Collaterals in Hemorrhagic-onset MMD

- Involvement of the PCA

TABLE 4. Proportions (adjusted odds ratios) of PCA involvement

MMD Group	Grade 0		Grade ≥1		Crude		Sex/Age Adjusted	
	No.	%	No.	%	OR	95% CI	OR	95% CI
Ischemic	81	78.6%	22	21.4%	1.00	Reference	1.00	Reference
Hemorrhagic	51	68.0%	24	32.0%	1.73	0.88–3.41	0.111	1.60 0.79–3.21

Overall 178 hemispheres (n = 103 ischemic and 75 hemorrhagic).

- Suzuki's angiographic staging

TABLE 5. Comparison of Suzuki angiographic stage between ischemic-onset and hemorrhagic-onset groups

MMD Group	Grade <4		Grade ≥4		Crude		Sex/Age Adjusted	
	No.	%	No.	%	OR	95% CI	OR	95% CI
Ischemic	49	47.6%	54	52.4%	1.00	Reference	1.00	Reference
Hemorrhagic	24	32.0%	51	68.0%	1.93	1.04–3.59	0.038	1.95 1.02–3.74

Overall 178 hemispheres (n = 103 ischemic and 75 hemorrhagic).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JNS CLINICAL ARTICLE

Effect of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on de novo hemorrhage in moyamoya disease: analysis of nonhemorrhagic hemispheres in the Japan Adult Moyamoya Trial

Takeshi Funaki, MD, PhD,¹ Jun C. Takahashi, MD, PhD,² Kiyohiro Houkin, MD, PhD,³ Satoshi Kuroda, MD, PhD,⁴ Miki Fujimura, MD, PhD,⁵ Yasutake Tomata, PhD,⁶ and Susumu Miyamoto, MD, PhD,¹ on behalf of the JAM Trial Investigators

Funaki T, et al. *J Neurosurg* 2019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on de novo Hemorrhage in MMD

□ 36 Nonhemorrhagic hemispheres of patients in the JAM Trial

FIG. 4. Flow diagram for study inclusion.

TABLE 1. Baseline variables of 36 nonhemorrhagic hemispheres treated conservatively

	Choroidal Anastomosis		p Value
	Positive	Negative	
No. of hemispheres	15	21	
Mean age in yrs ± SD	41.2 ± 13.2	42.3 ± 11.8	0.801
Female	12 (80.0)	14 (66.7)	0.379
Hypertension	4 (26.7)	3 (14.3)	0.355
Diabetes mellitus	1 (6.7)	1 (4.8)	1.000
Hyperlipidemia	1 (6.7)	1 (4.8)	1.000
PCA involvement	5 (33.3)	4 (19.1)	0.329
History of TIA	4 (26.7)	3 (14.3)	0.355
Median Suzuki stage	4	4	0.340

Values are number (%) of hemispheres unless otherwise indicated.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on de novo Hemorrhage in MMD

□ De novo hemorrhage

- 3 hemisphere (8.3%) during 5-year follow up
- 2.0% per year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on de novo Hemorrhage in MMD

□ De novo hemorrhage

- All 3 hemispheres : choroidal-anastomosis-positive group
- 5.8% per year vs 0% per year; p = 0.017

FIG. 6. Kaplan-Meier curves for de novo hemorrhage in the choroidal-anastomosis-positive and -negative nonhemorrhagic hemispheres treated conservatively. Censored subjects are indicated by tick marks.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on de novo Hemorrhage in MMD

□ Hemorrhage location

- Periventricular area of the atrium
- Posterior part of the body of the lateral ventricle
- Typical distribution of choroidal anastomosis

● Choroidal collaterals (+)

→ risk of the de novo hemorrhage in nonhemorrhagic hemisphere

FIG. 7. Kaplan-Meier curves for de novo hemorrhage in all nonhemorrhagic hemispheres treated conservatively. Censored subjects are indicated by tick marks.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Choroidal Collateral Vessels on de novo Hemorrhage in MMD

□ Surgical vs. nonsurgical nonhemorrhagic hemispheres

- Nonhemorrhagic hemisphere with choroidal anastomosis positive & surgical – 0/10
- Nonhemorrhagic hemisphere with choroidal anastomosis positive & nonsurgical – 3/15

FIG. 8. Kaplan-Meier curves for de novo hemorrhage in surgical vs. nonsurgical nonhemorrhagic hemispheres.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Pseudoaneurysm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Case 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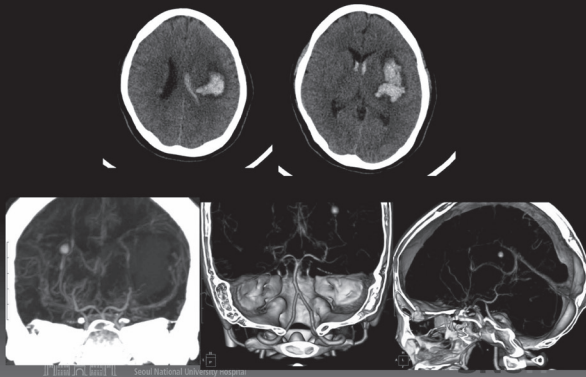
- F/37
- Past medical history (-)
- Familial history of stroke or moyamoya disease (-)
- C/sec, 2012-03-29
- 2012-04-05 : E3V2M6
- Right side weakness, motor Gr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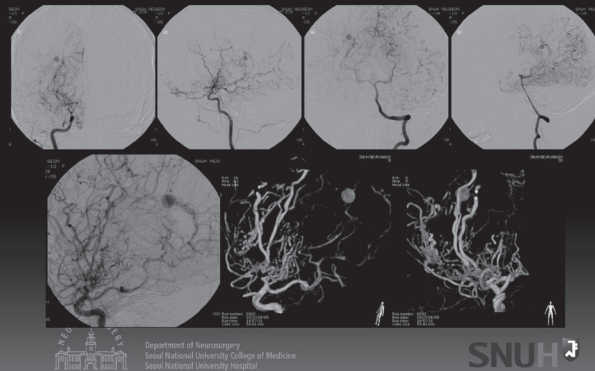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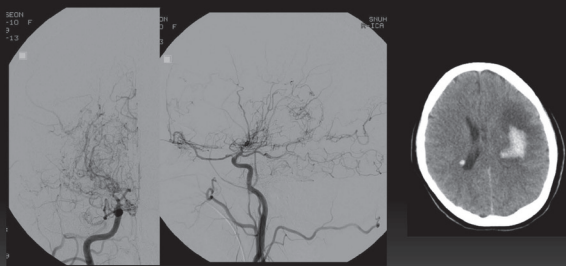
Initial Outside Brain CT 2012-04-05



TFCA 2012-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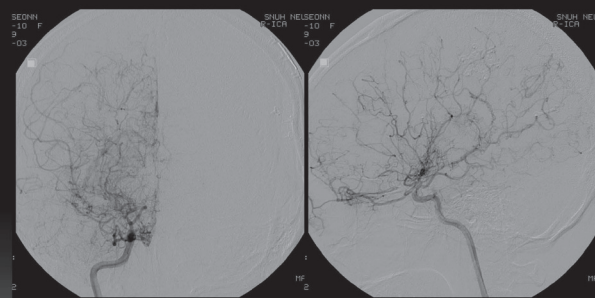
Embolization Angiography 2012-04-13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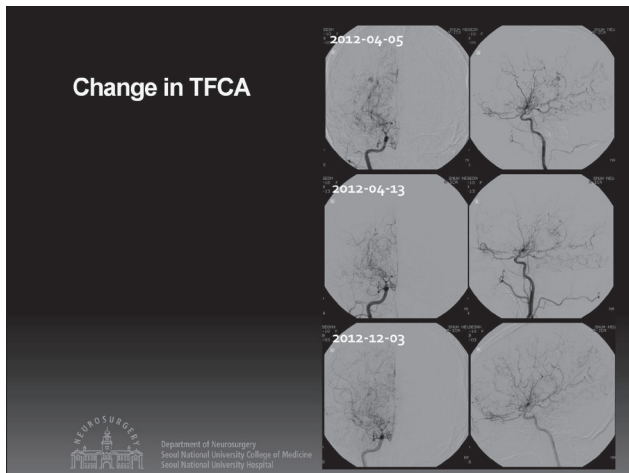
SNUH

TFCA 2012-12-03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CLINICAL REPORT

Neurosurgery 2009

ENDOVASCULAR TREATMENT OF RUPTURED ANEURYSMS OR PSEUDOANEURYSMS ON THE COLLATERAL VESSELS IN PATIENTS WITH MOYAMOYA DISEASE

Kim SH, et al. Neurosurger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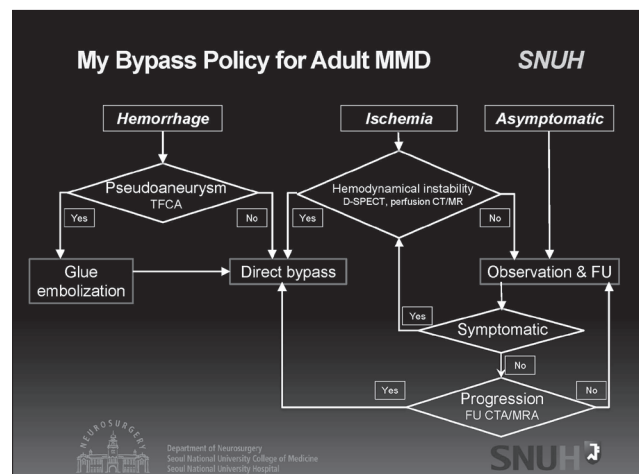
- 8 patients with IOH, IVH
 - 7 distal AchA, PchA
 - 1 distal collateral branch of Acom
 - N-butyl-cyanoacrylate
- Angiographic outcome
 - 7 complete occlusion without complication
 - 1 failed
- Clinical outcome
 - 6 complete clinical recovery
 - No additional/new neurologic deficit / infarction
 - No further bleeding during 24 months (11-60) follow-up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urgical Indications SNUH

- Symptomatic
 - Repeated hemorrhage
 - Asymptomatic but progression on MRA, CTA, TFCA
- Functionally independent: KPS $\geq$ 70
- No acute infarction/hemorrhage within 4 weeks
- Hemodynamically unstable
 - D-SPECT with perfusion CT or perfusion MR ASL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nclusion

- Direct revascularization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hemorrhagic adult MMD to prevent further hemorrhage on the affected hemisphere.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ndovascular treatment for targeted embolization in Moyamoya disease with hemorrhagic manifestation

반승필

서울대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Endovascular treatment for targeted embolization in Moyamoya disease with hemorrhagic manifes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ung Pil Ban, O-Ki Kwon, Young Deo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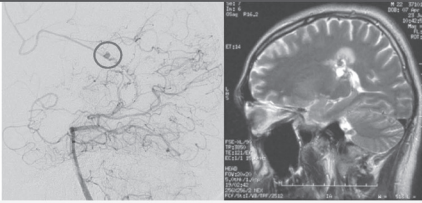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MD with hemorrhage

- Endovascular treatment
 - ruptured small aneurysmal lesions at collateral vessels
 - choroidal, basal (LSA) MMV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rupture at collateral pathways (40%)
 - choroidal and basal (LSA) collaterals



The ruptured lesion is sometimes visualized
- Small aneurysm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Identity – true or pseudoaneurysm Neurosurgery,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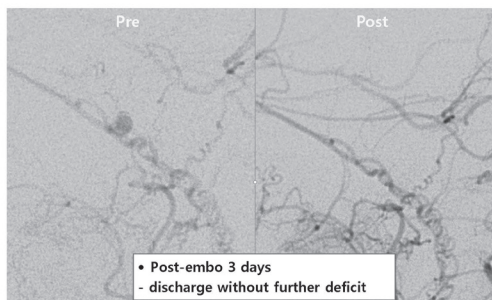
TABLE 1. Reported Cases of Distal Anterior Choroidal Artery Aneurysms in Patients with Moyamoya Disease*

Series (Ref. No.)	Age (yr)/Sex	Location of Aneurysm	Symptoms and Computed Tomographic Findings	Treatment	Histology	Outcome
Takayama et al., 1976 (22)	43M	Left trigone	SAH	Conservative		No deficit
Tanaka et al., 1978 (23)	57F	Right TH	IVH	Conservative		Died
Takahashi, 1980 (21)	59M	Left choroidal fissure	SAH			
Yamada et al., 1981 (25)	42F	Right	ICH			
Furue et al., 1982 (3)	54F	Right	ICH	Excision	False aneurysm	Homonymous hemianopia
Kasano et al., 1984 (6)	55F	Right TH	SAH (another aneurysm)	Clipping (ruptured aneurysm)		Died
Kozishi et al., 1985 (10)	16F	Right	ICH with IVH	Conservative		
	13M	Right	IVH	Conservative		No deficit
	34F	Right	IVH	Conservative		Died
	57F	Right	IVH	Conservative		Died
Onda et al., 1988 (17)	43M	Left trigone	SAH	Conservative		
Mori et al., 1988 (13)	57M	Right trigone	ICH with IVH	Excision	False aneurysm	No deficit
	50F	Right trigone	ICH with IVH	Excision	False aneurysm	No deficit
Nakai et al., 1992 (15)	42M	Lateral to trigone, right	ICH	Trapping and excision	True aneurysm	No deficit
Present case	46M	Lateral to trigone, right	ICH with IVH	Trapping and excision	True aneurysm	No deficit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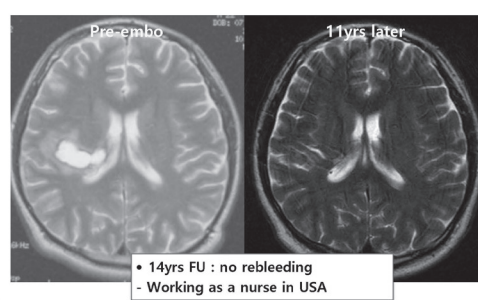
✓ M/23, Left hemiparesis Gr. 4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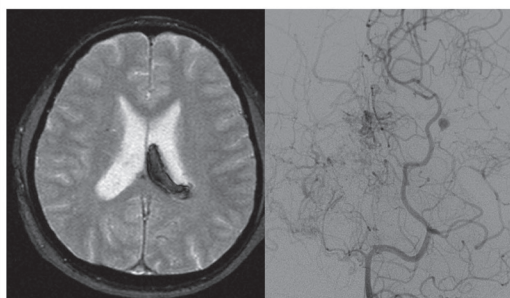
✓ M/23, Left hemiparesis Gr. 4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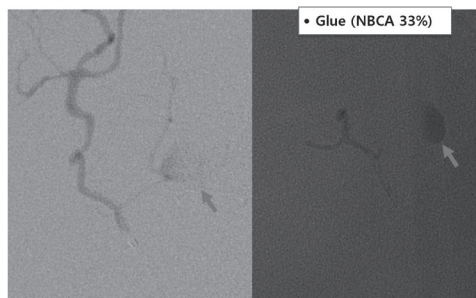
✓ M/59,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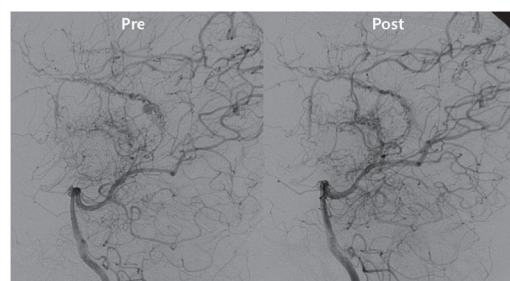
✓ M/59,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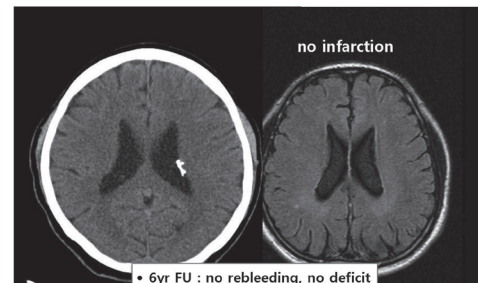
✓ M/59, Headache



2019 SKEN-KSC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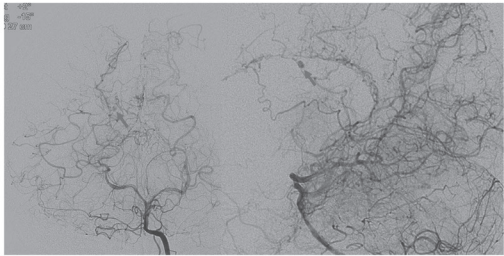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59,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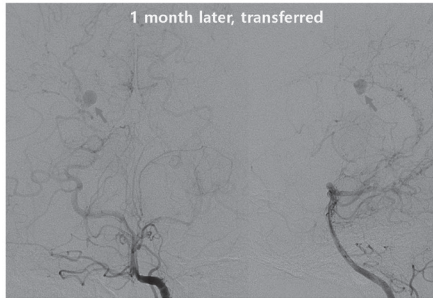
✓ F/62, Headache / IVH_EVD and observation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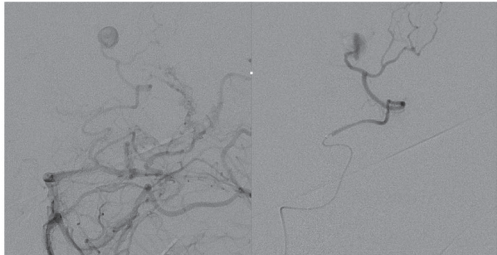
✓ F/62, Headache / IVH_EVD and observation

1 month later, transferred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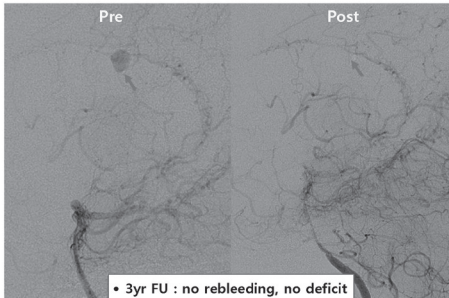
✓ F/62, Headache / IVH_EVD and observation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62, Headache / IVH_EVD and ob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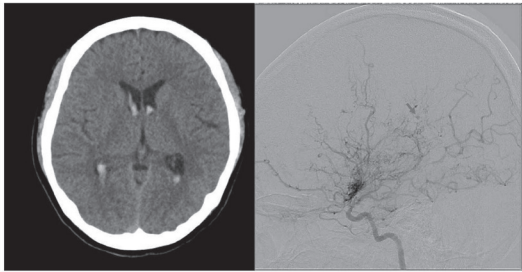
Pre Post



• 3yr FU : no rebleeding, no deficit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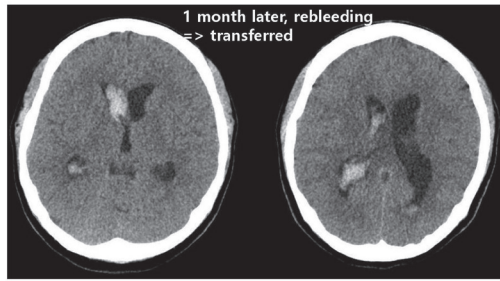
✓ F/27, Headache -> IVH & observation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27, Headache (IV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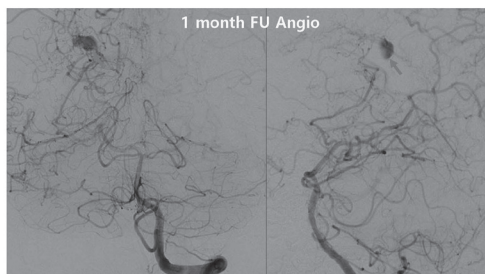
1 month later, rebleeding
=> transferred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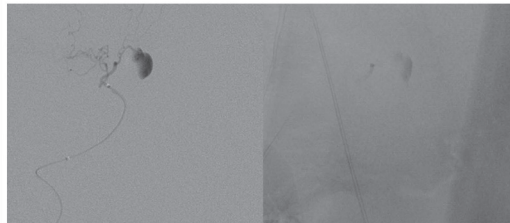
✓ F/27, Headache (IVH)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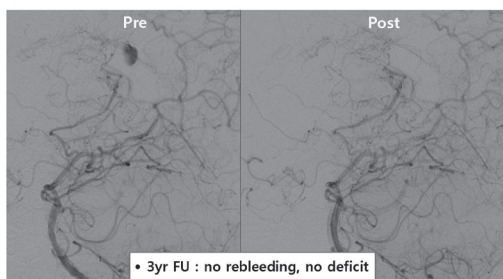
✓ F/27, Headache (IVH)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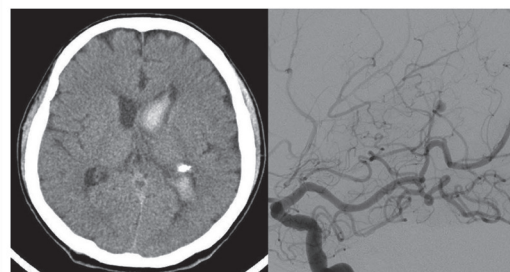
✓ F/27, Headache (IVH)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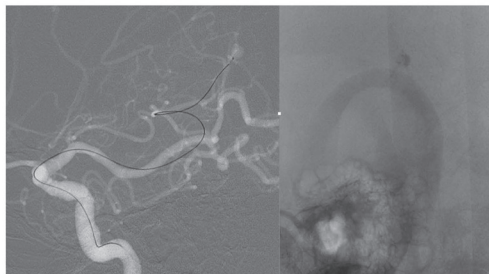
✓ M/57,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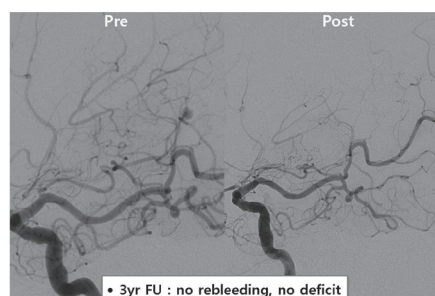
✓ M/57, Headache



2019 SKEN-KSC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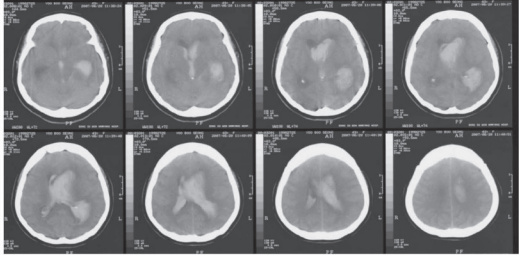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57, Heada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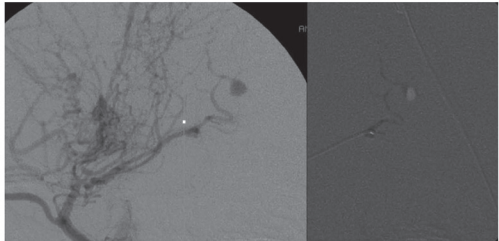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43, Coma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43, C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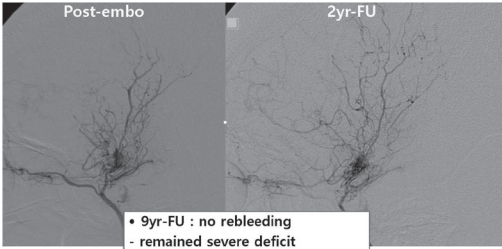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43, Coma

Post-em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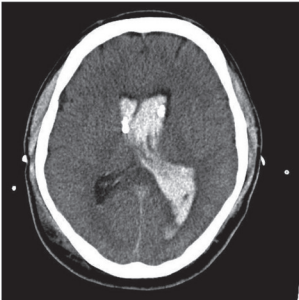
2yr-FU



• 9yr-FU : no rebleeding
- remained severe defi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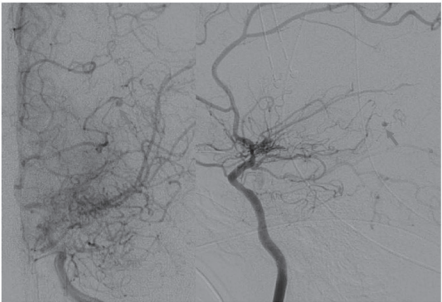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38, semic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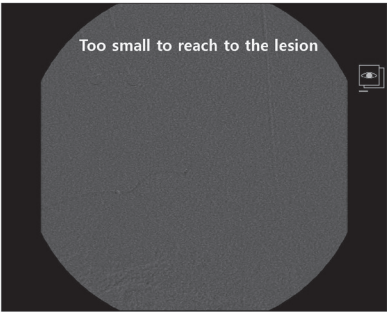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38, semic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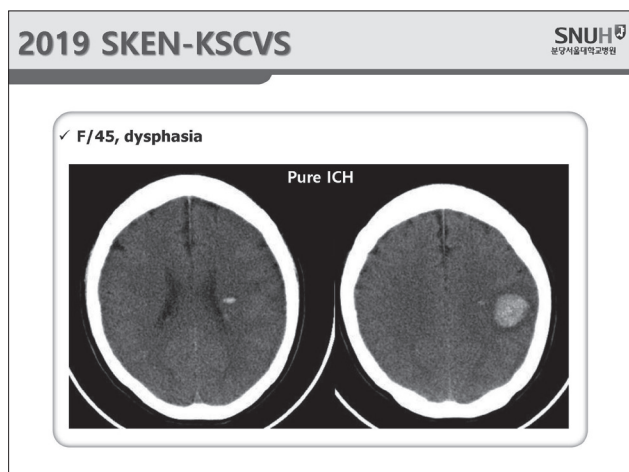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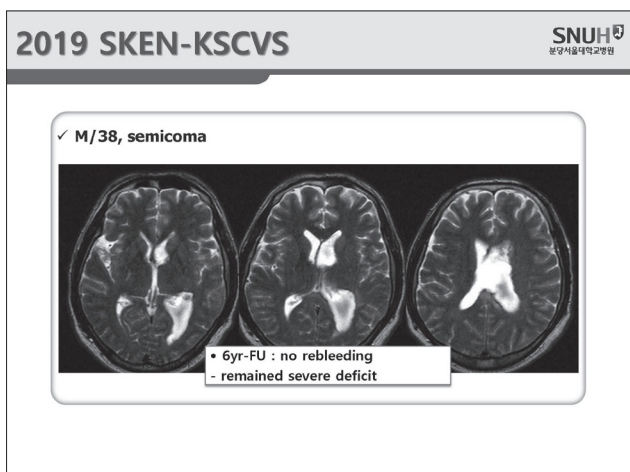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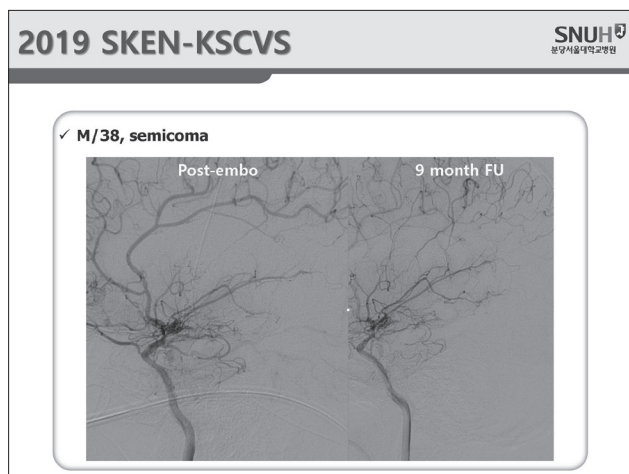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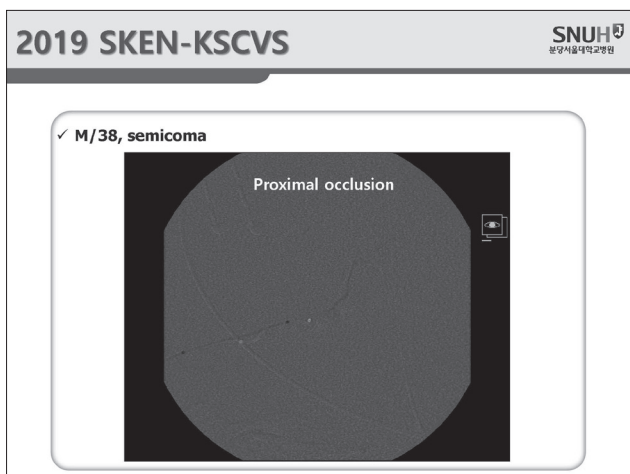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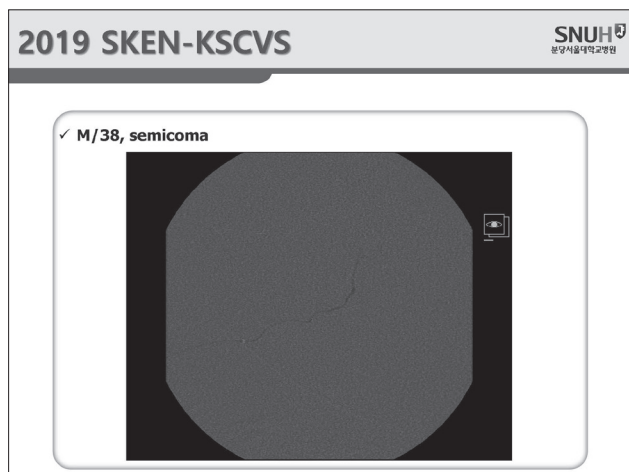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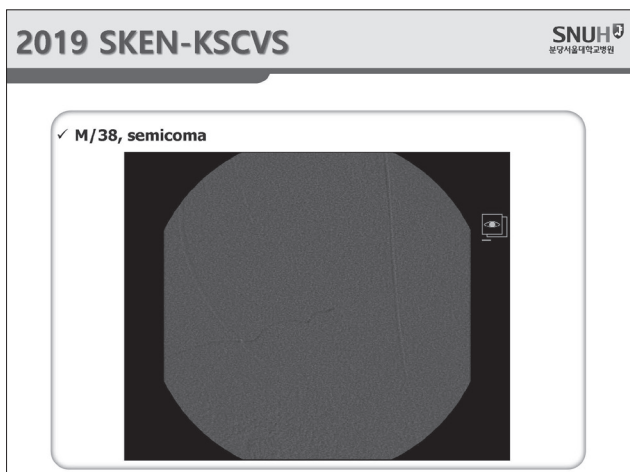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38, semic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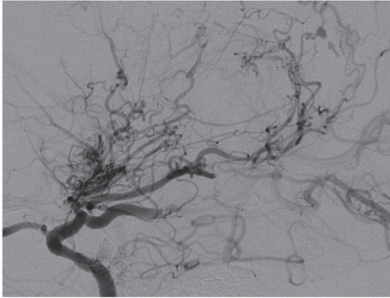


Too small to reach to the le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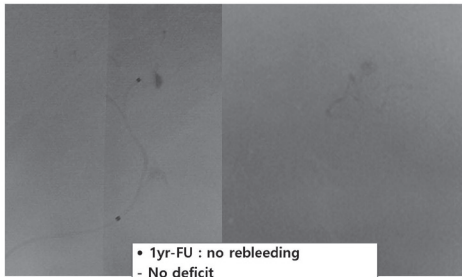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45, dysphasia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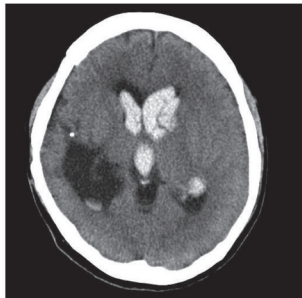
✓ F/45, dysphasia



• 1yr-FU : no rebleeding
- No defi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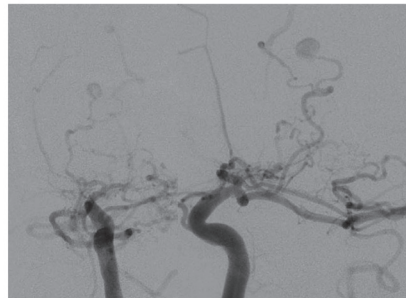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44, heada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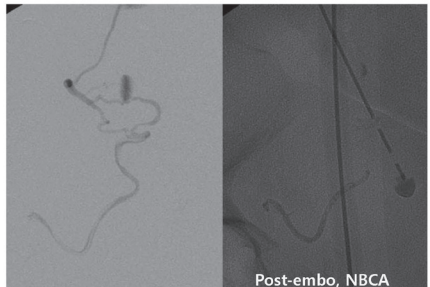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44,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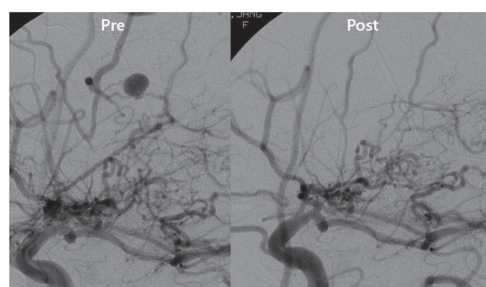
✓ F/44, headache



Post-embo, NBCA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F/44, heada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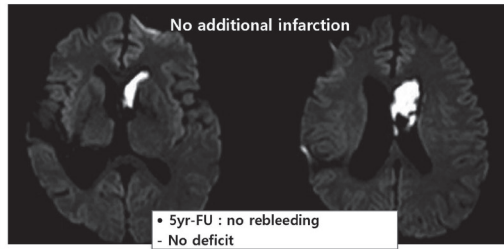


Pre Post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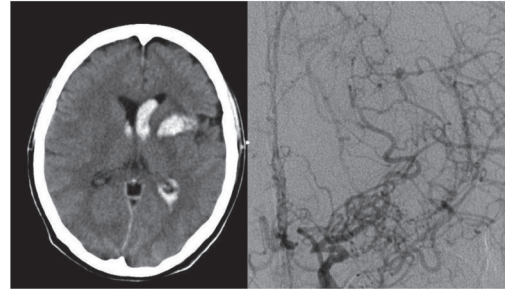
✓ F/44,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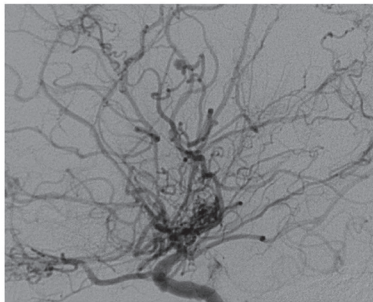
✓ F/54,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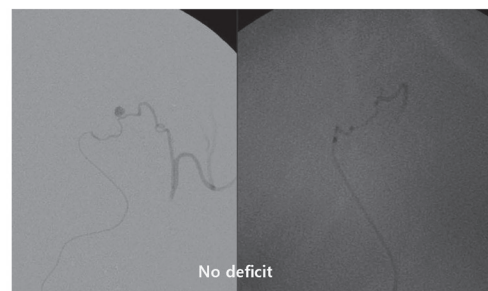
✓ F/54,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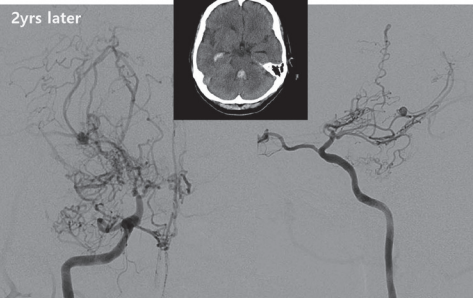
✓ F/54,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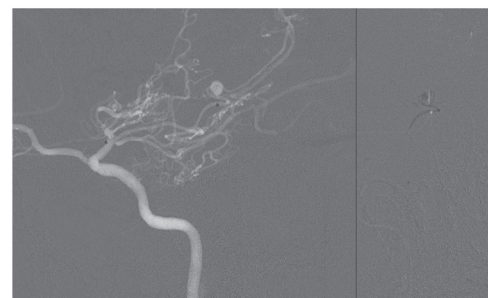
✓ F/54,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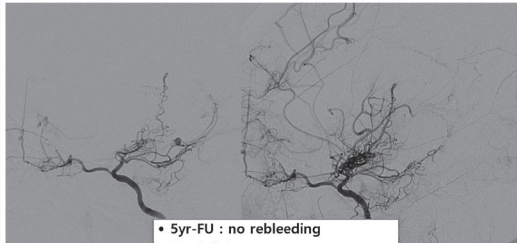
✓ F/54,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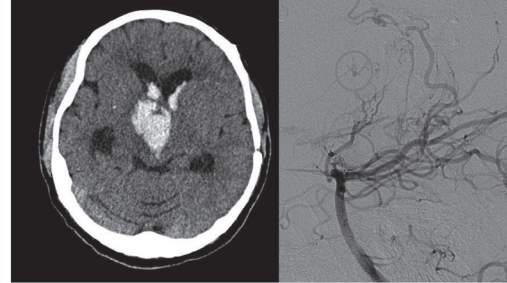
✓ F/54,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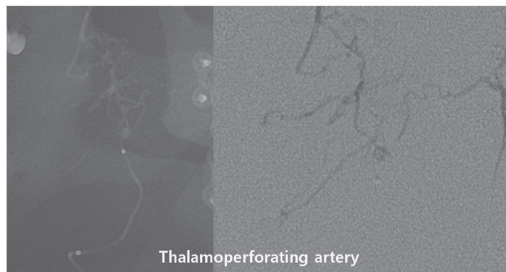
✓ F/30, coma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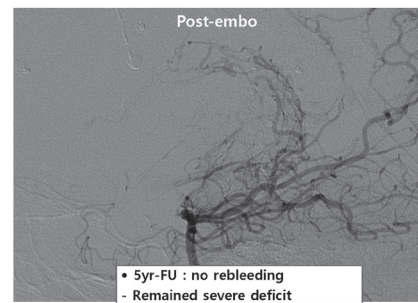
✓ F/30, coma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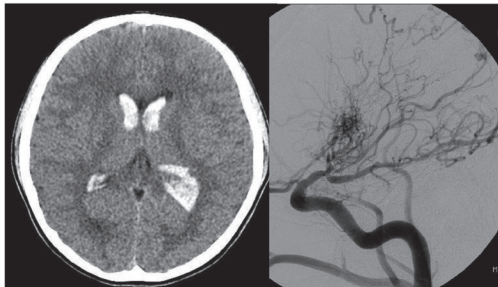
✓ F/30, coma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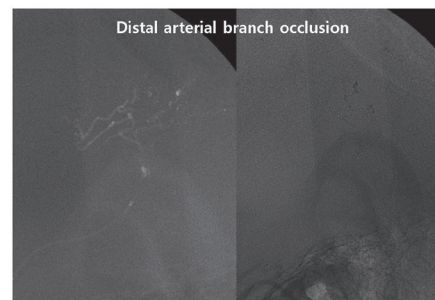
✓ M/14, Headache & Seizure << complication case >>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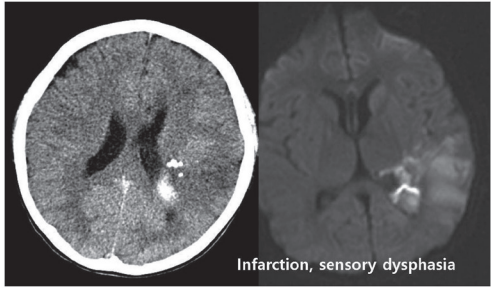
✓ M/14, Headache & Seizure << complication case >>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14, Headache & Seizure << complication c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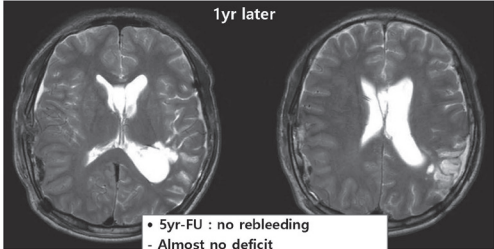


Infarction, sensory dysphasia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14, Headache & Seizure << complication c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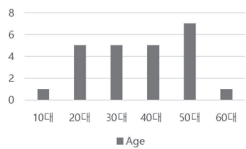
1yr later

- 5yr-FU : no rebleeding
- Almost no deficit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24 patients for 16 years



- Age : 41 ± 14 (14 ~ 62 yrs)
- Female : 16 (64%)
- Prev. ischemic sx : 4
 - prev bypass op in 3 (1, 2, 6yrs)
- Perfusion study : perfusion decrease in 14, normal 4
- Prev. bleeding: 7
 - at the same site 4, 2 within 1 month
- Symptoms
 - headache, 15 / altered mentality, 9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24 patients for 16 years

- Location
 - LPChA, 11 / AChA, 9 / LSA, 3 / TPA, 1
- Laterality
 - Rt, 10 / Lt, 14
- Aneurysm size
 - 3.4 ± 2.1 mm (1.2 ~ 10.0 mm)
 - smaller than 2.5 mm in 50%
- Embolization materials
 - Glue (NBCA), 22 / Onyx, 2
- Occlusion technique
 - proximal occlusion, 9 / sac occlusion 15
 - all angiographically disappeared
- Date of embolization after bleeding
 - 23 ± 39 days (0 ~ 147), 54% within 1 week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Results

- Complication
 - 2, new infarction from the occlusion (recovered)
- At follow-up
 - rebleeding at the same site : none
 - for 47 months (47 ± 35 months, 1 ~ 159 months)
 - hemorrhage in contralateral side in 3
- Recurred aneurysm
 - none, followed by TFCA (14), MRA (5), CTA (2), no FU study in 3
- Clinical outcome
 - normal life in 18 (75%)
 - moderate deficit in 3
 - bed ridden in 3 (as initial stag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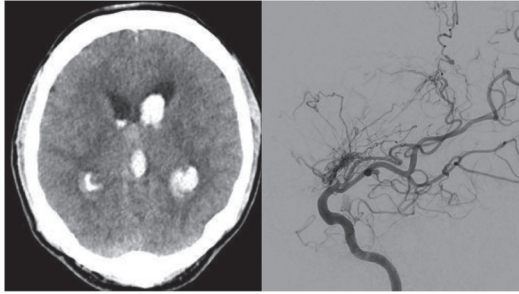
✓ Issue #1. Detection of the aneurysm

- Not all hemorrhage from MMD has an aneurysmal lesion. (1/3)
- But careful inspection is necessary
- More lesions can be found. (1/2)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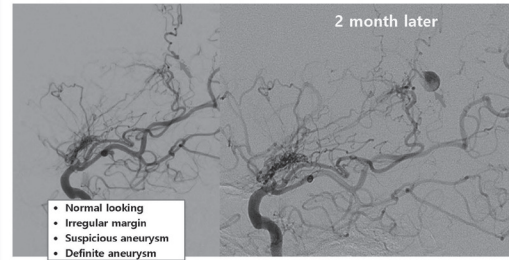
✓ M/28,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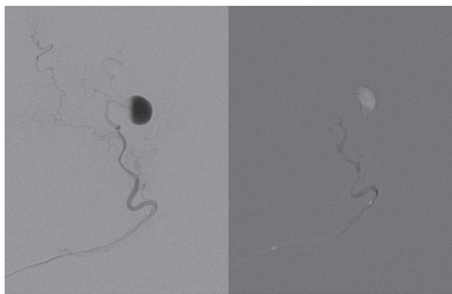
✓ M/28,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M/28, Headache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Issue #2. Indication

- Not enough information on natural history
 - spontaneous regression
 - aggressive stance ?
 - no conclusion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Suggestion : when an aneurysmal lesion is detected

- Endovascular occlusion is a feasible option
- Effective in prevention of rebleeding
- Not that difficult as it shows
- Not that risky as it shows
- Proximal occlusion seems to be enough
 - easier & safer option

2019 SKEN-KSCVS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SKEN-KSCVS 합동 연수강좌



Special Lecture

좌장: 고준석 (경희대), 김종수 (성균관대)

1. Clinical application of DTI for stroke in the viewpoint of neurosurgery

장성호 (영남대 재활의학과)

Clinical application of DTI for stroke in the viewpoint of neurosurgery

장성호

영남대 재활의학과

Clinical Application of DTI for Stroke in Viewpoint of Neurosurgery



영남의대 재활의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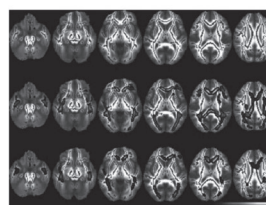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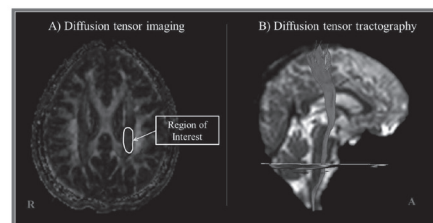
장 성 호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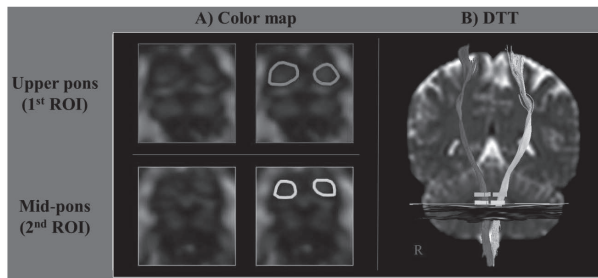
- Diffusion tensor tractography
- Intracerebral hemorrhage
- Cranioplasty
- EVD
- Shunt

Our Brain Mapping Techniques

-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TMS)
- Functional MRI
- Diffusion tensor tractography (DTT)
- Functional NIRS



Tract-based spatial statistics



Analysis conditions: 1) Fractional anisotropy, 2) 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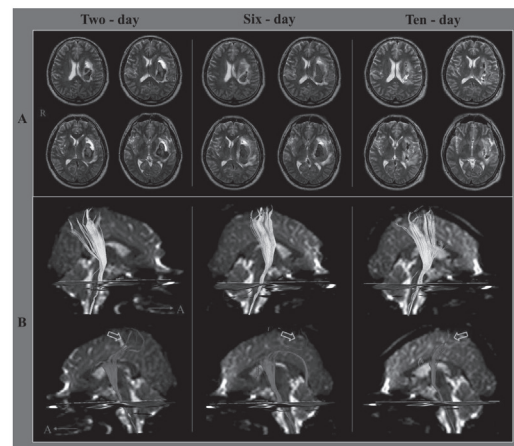
Repeatability & Reproducibility: 0.9~1.0

DTT로 reliable하게 분석할 수 있는 Neural tracts

- Motor: Corticospinal tract, Corticoreticulospinal tract, Corticofugal tract from secondary motor area, Corticobulbar tract
- Somatosensory: Medial lemniscus, Spinothalamic tract
- Movement: Dentatorubrothalamic tract, Corticopontocerebellar tract
- Consciousness: 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
- Cognition: Papez circuit, Fornix, Cingulum, Prefronto-thalamic tract, Prefronto-caudate tract
- Vestibular: Cortico-thalamo-vestibular tract, Vestibulo-cerebellar tract, Vestibulospinal tract
- Visual: Optic radiation
- Auditory: Auditory radiation, Auditory tract
- Language: Arcuate fasciculus
- Cranial nerves: CN 3, 5, 9, 10
- Others: Superior longitudinal tract, Inferior longitudinal tract, IFOF, Uncinate fasciculus, SCP, MCP, ICP, Corpus callosum

순서

- Diffusion tensor tractography
- Intracerebral hemorrhage
- Cranioplasty
- EVD
- Shunt



Difference of injury of the corticospinal tract according to surgical or conservative treatment in patients with putaminal hemorrhage

Table 2. Change of volumes of hematoma, peri-hematoma edema and total lesion.

	Surgical treatment group	Conservative treatment group
Hematoma volume on initial brain CT	30.69 ± 4.16	29.17 ± 3.43
Hematoma volume on brain MRI	15.41 ± 9.64 ^a	24.91 ± 9.45 ^c
Peri-hematoma edema volume on brain MRI	10.18 ± 9.81 ^a	26.80 ± 15.28 ^c
Total lesion volume on brain MRI	25.60 ± 16.73	51.71 ± 20.05 ^{abc}

Average 23 days after onset

Difference of injury of the corticospinal tract according to surgical or conservative treatment in patients with putaminal hemorrh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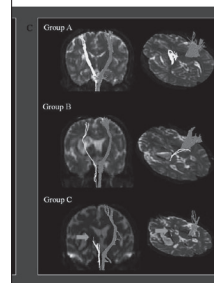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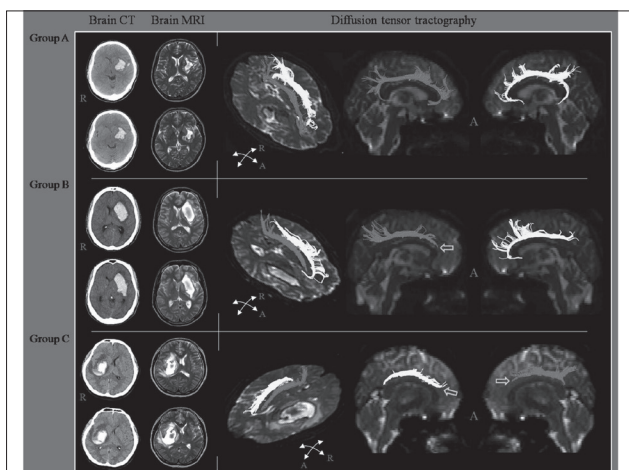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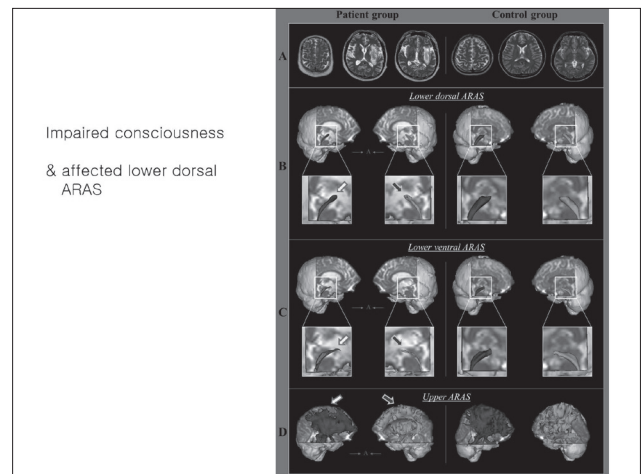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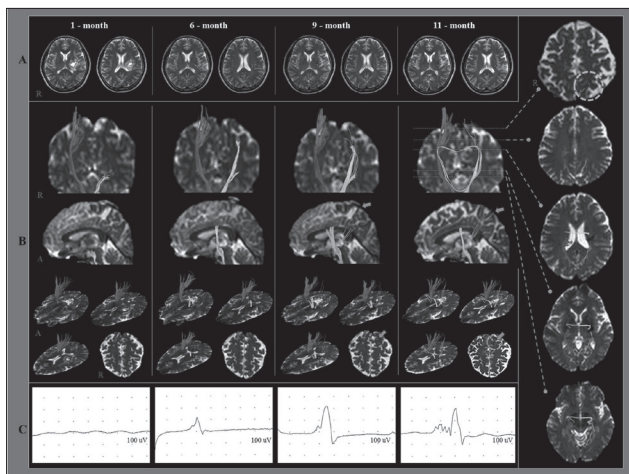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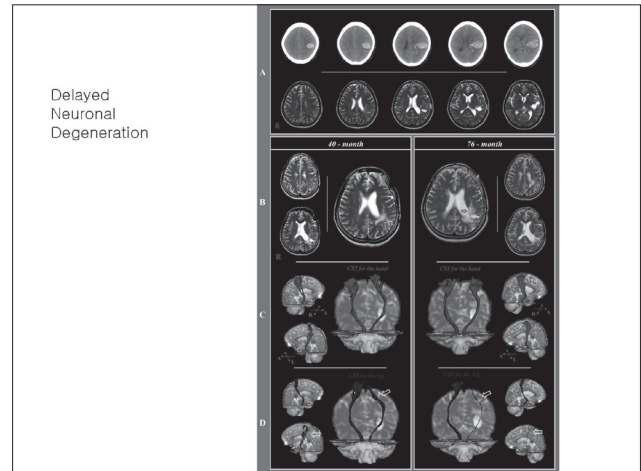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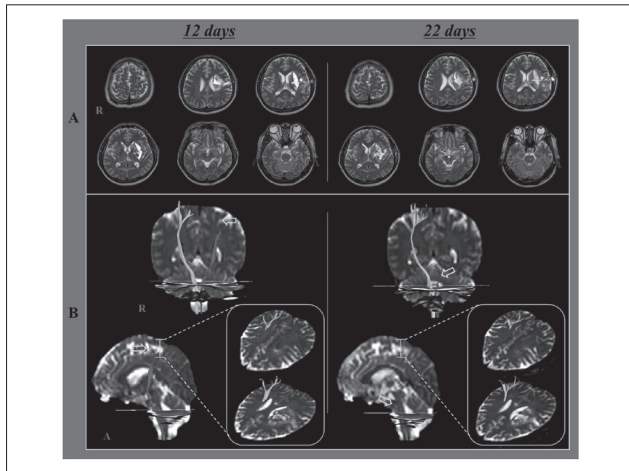


Table 3. Types of the affected corticospinal tract on diffusion tensor tract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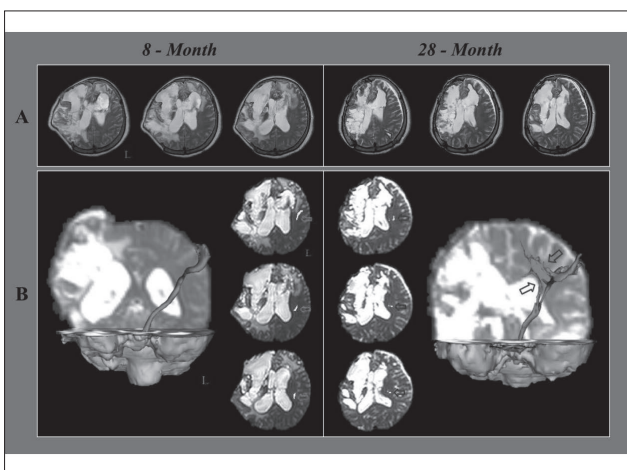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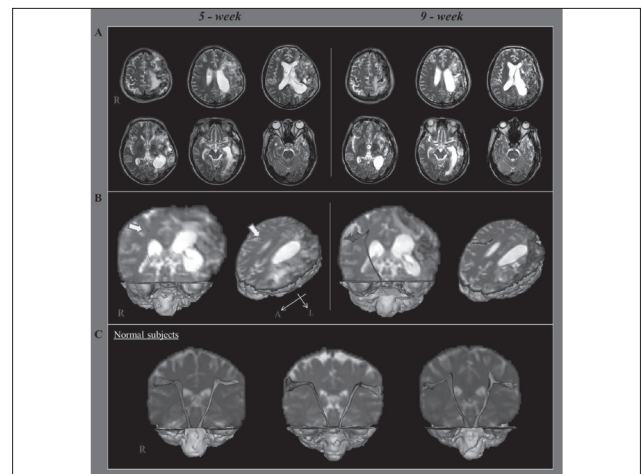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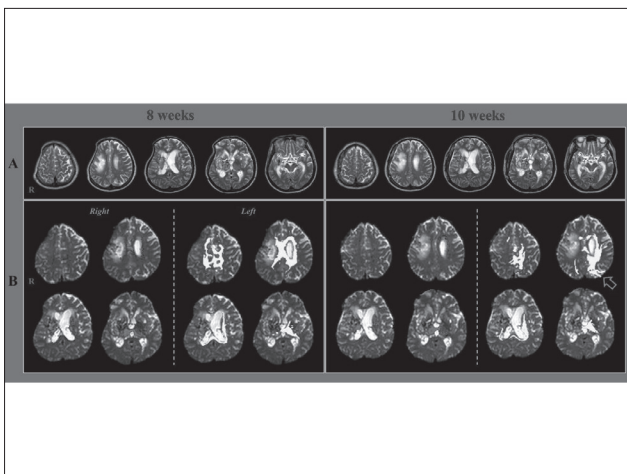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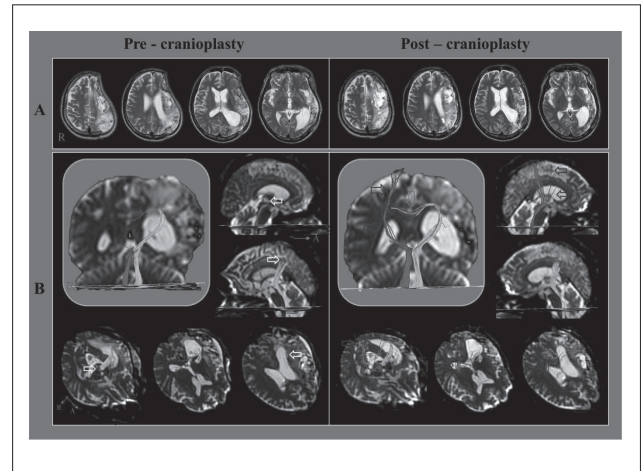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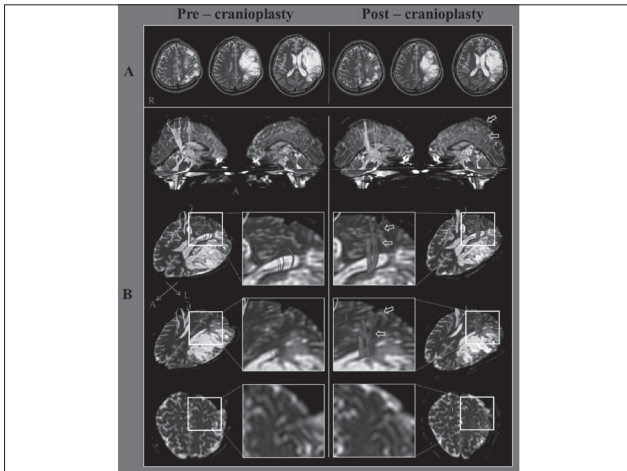
	Surgical treatment group (n = 20)	Conservative treatment group (n = 26)
Type		
Type A	8 (40%)	2 (8%)
Type B	2 (10%)	8 (31%)
Type C	10 (50%)	16 (61%)

Values a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patients.



순서

- Diffusion tensor tractography
- Intracerebral hemorrhage
- Cranioplasty
- EVD
- Shunt



순서

- Diffusion tensor tractography
- Intracerebral hemorrhage
- Cranioplasty
- EVD
- Sh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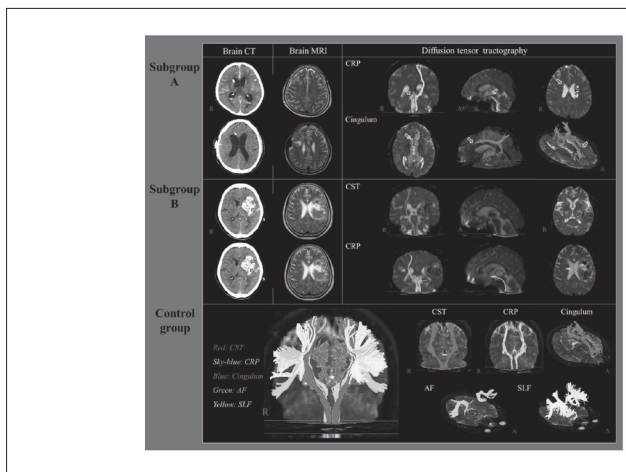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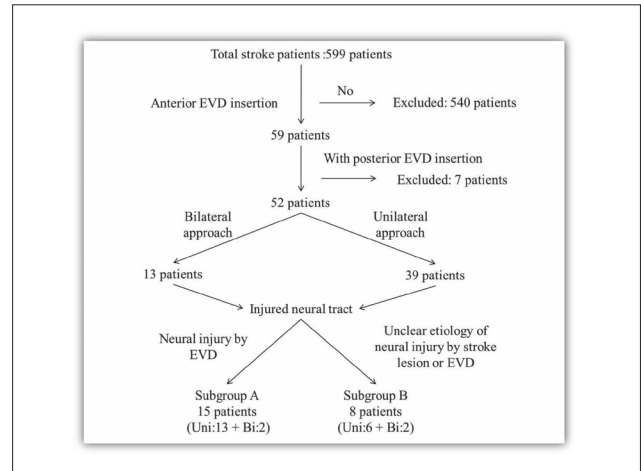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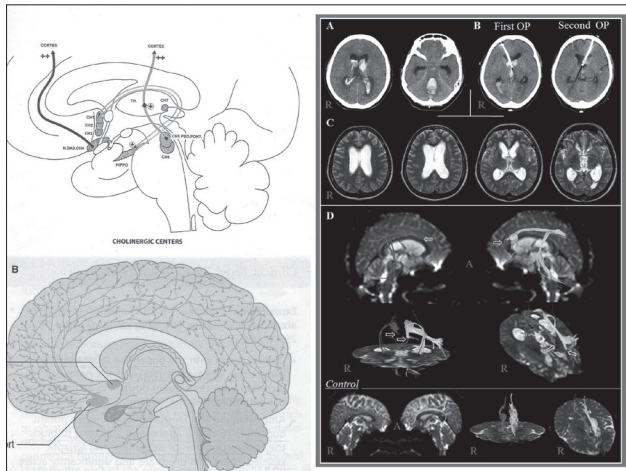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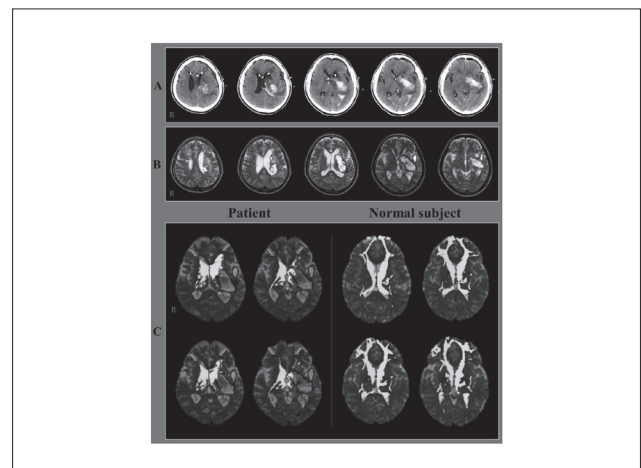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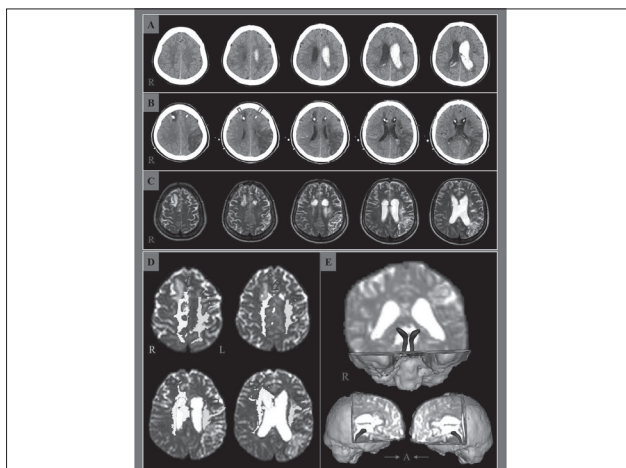


Table 1. Demographic and diffusion tensor imaging data of the patient and contro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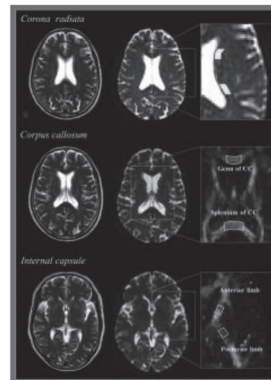
	Patient group (n = 43)	Injured group (n = 15)	Control group (n = 22)
Age	56.1 ± 9.7	58.4 ± 7.2	50.1 ± 16.1
Sex (Male/Female)	28/24	6/9	14/8
EVD approach (Unilateral/Bilateral)	40/12	13/2	
Diagnosis			
ICH+IVH+Hydro	5	0	
SAH+IVH+Hydro	16	8	
SAH+IVH	2	0	
ICH+IVH	13	5	
ICH+Hydro	4	0	
Other	3	2	
Incidence of neural injury			
CST	24 (55.8%)	0 (0.0%)	
CRP	14 (32.6%)	7 (16.3%)	
Cingulum	12 (27.9%)	8 (18.6%)	
AF	2 (4.7%)	0 (0.0%)	
SLF	2 (4.7%)	0 (0.0%)	
Duration to DTI after EVD (days)	34 ± 12.8	30 ± 15.9	
Number of EVDs(one:two:three)	25:12:6	10:4:1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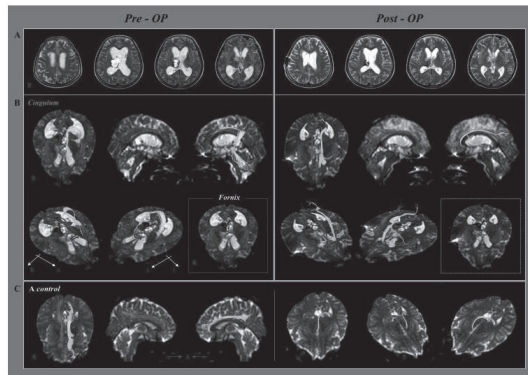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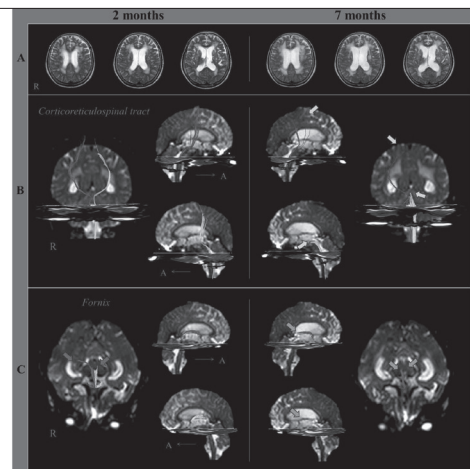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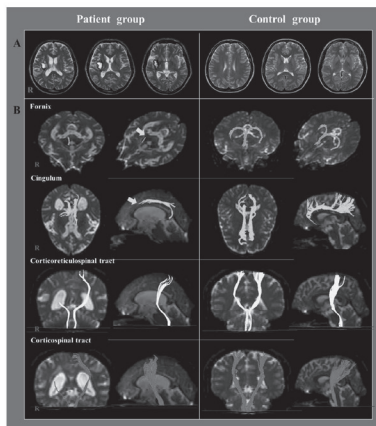
- Diffusion tensor tractography
- Intracerebral hemorrhage
- Cranioplasty
- EVD
- Shunt

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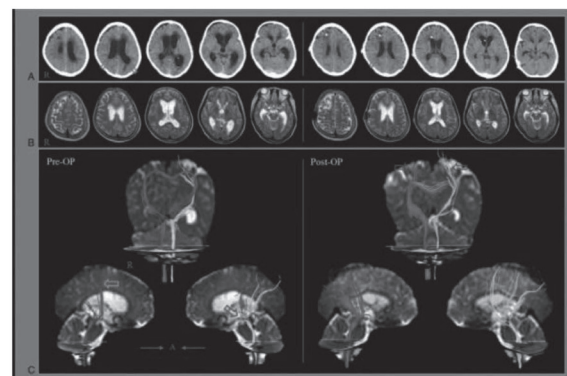


FA		
Anterior CL		0.311 ± 0.017
Posterior CL		0.204 ± 0.019
Genu of CC		0.260 ± 0.022
Splenium of CC		0.299 ± 0.017
Anterior limb		0.413 ± 0.087
Posterior limb		0.269 ± 0.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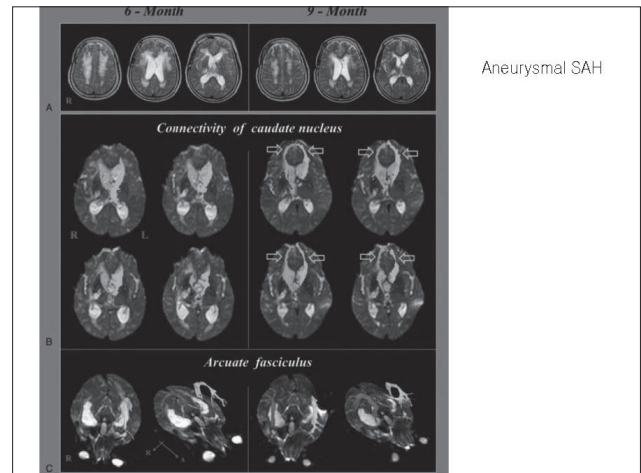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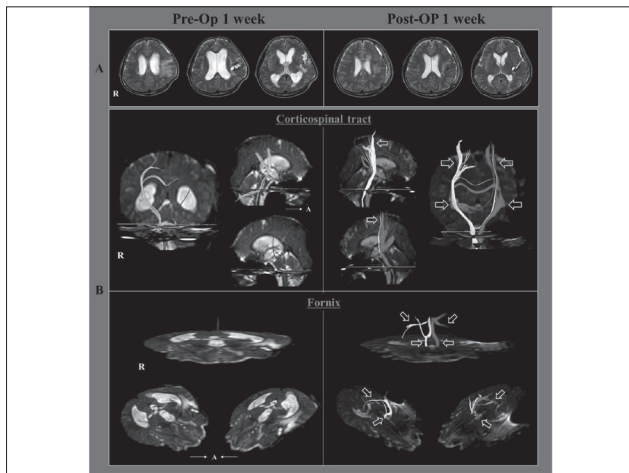
ICH



ICH, IVH, MMSE: 4→24(7days)



IVH Post-op 4 wk-walking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SKEN-KSCVS 합동 연수강좌



Session III. Intracranial Dissection: General

좌장: 윤석만 (순천향대), 김태선 (전남대)

1. Epidem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intracranial dissection
권오기 (서울대)
2. Diagnostic image of intracranial dissection
류창우 (경희대 영상학과)
3. Natural course and medical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김대원 (원광대)

Epidem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intracranial dissection

권오기

서울대

[illegible]

Diagnostic image of intracranial dissection

류 창우

경희대 영상의학과

두개강내 혈관박리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혈관 박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는 혈관내막(intima)이 손상되고 분리되면서 혈류에 밀려 혈관 중막(media) 및 외막(adventitia)으로 박리가 되면 협착, 폐색, 뇌동맥류 또는 뇌출혈로 나타날 수 있다. 혈관박리에서 영상은 사실상 유일한 진단방법이며, intramural hematoma, double lumen, 박리성 동맥류, dissecting intimal flap 등을 영상에서 관찰하여 혈관박리로 진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가 표준 진단도구로 여겨지고 있으나, 혈관강의 외측을 못보는 한계가 있어 여러 다른 비침습적 영상방법을 병행하여야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두개강내 혈관박리의 영상진단의 기법과, 방법, 영상소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Digital Subtraction Cerebral Angiography

Digital subtraction cerebral angiography은 영상장비 중 동맥의 형태를 가장 정확히 보여줄 수 있고, 동적인 혈류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혈관박리의 진단에 있어서 골드스탠다드의 역할을 한다. 혈관조영술에서 두개강내 혈관박리의 소견은 1) intimal flap 2) double lumen 3) pearl and string sign 4) fusiform dilation and stenosis 등이다. Intimal flap과 double lumen은 특징적인 소견이나 일부의 경우에서만 관찰되며 Pseudolumen은 명확한 경계가 없이 조영제의 정체만 으로 보일 수 있다. pearl and string sign과 fusiform dilataion and stenosis는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이나 이러한 두 소견이 혈관박리 외의 다른 경우에도 볼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확진의 소견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근 래에 들어서는 MRI 및 MRA가 혈관박리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중요한 일차영상검사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혈관조영술로 진단이 명확치 않은 경우 다른 영상방법을 병행하여 혈관강 바깥의 소견, 즉 intramural hematoma와 pseudolumen을 관찰하여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CT Angiography

CT angiography (CTA)는 빠르게 뇌혈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이며, 기본적으로 두개강내 혈관박리의 CTA에서는 고식적 혈관조영술과 같이 intimal flap 과 double lumen을 봄으로써 혈관박리를 진단하게 된다. CTA의 source images에서 혈관강 외측의 병리를 단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pseudolumen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wall thickening으로만 보이는 소견은 동맥경화증과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영상획득에 있어 적절한 타이밍의 스캔과 조영제의 투여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진단에 적합한 영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MRI and MRA

Intramural hematoma는 특징적으로T1 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의, 초생달 모양의 혈관벽의 두꺼워짐으로 관찰된다. 또는 혈관벽의 두께 증가는 positive remodeling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주 보이는 소견은 아니지만 단면영상 및 MRA source imaging에서 intimal flap이 관찰될 수도 있다. DSA와 같이 MRA에서도 pearl and string sign과 fusiform dilation and stenosis 로 관찰될 수 있다. 그러나 MRI, MRA는 해상도가 conventional angiography보다 낮기 때문에 단순한 atherosclerosis의 소견으로 오해하고 진단이 안될 수도 있다. 또한 time-of-flight (TOF) MRA검사의 특성상 혈관내 turbulence flow에 의해 intimal flap이 위양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Peri-arterial fat이나 intraluminal thrombus 역시 Intramural hematoma로 오인될 수 있다. 그 외 fenestration과 같은 해부학적 변이도 혈관박리로 오진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영상검사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1. 조영증강 MRI 및 MRA검사: intimal flap과 double lumen을 더 용이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Susceptibility weighted imaging: 혈액성분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영상이며 intramural hematoma가 crescent dark rim으로 보인다.
3. Basiparallel Anatomic Scanning (BPAS): vertebrobasilar artery의 장축에 따라 20mm의 절편으로 두꺼운 영상을 획득하여 혈관외벽을 형상화 하는 기법으로 혈관외벽과 MRA의 혈관내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혈관박리를 진단할 수 있다.

Recommendation of Diagnostic Procedures for Intracranial Dissection

출혈성 박리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 동반된 혈관박리는 CTA에서 double lumen, pearl and string sign, fusiform aneurysm을 진단하고, saccular aneurysm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DSA를 시행하여 이러한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내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허혈성 박리

MRI가 아주 중요한 진단 수단이며 posterior circulation의 경우 BPAS와 MRA를 동시에 얻어 비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MRA에서 double lumen, intramural hematoma, fusiform dilatation, and the pearl and string sign을 진단하고 T1강조 영상과 MRA source 영상에서 혈관벽의 intramural hemorrhage 와 intimal flap을 진단할 수 있다. 조영증강 T1 강조영상 또는 MRA source 영상에서는 double lumen을 더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영상검사의 한계

혈관박리의 진단 자체가 영상검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영상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고령에서 전형적인 증상이 없이 발생한 혈관박리의 경우, 영상 검사의 소견이 atherosclerosis와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혈관박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추적검사가 중요하다.

결론

혈관박리는 급성기에 적절히 진단이 되지 않고 치료가 늦어진다면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영상검사법과 영상소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Hwang, J., et al., Selective Application of High-Resolution 3 T MRI in the Evaluation of Intracranial Vertebral Artery Dissection. *J Neuroimaging*, 2017. 27(1): p. 71-77.
2. Kanoto, M. and T. Hosoya, Diagnosis of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 *Neurol Med Chir (Tokyo)*, 2016. 56(9): p. 524-33.
3. Ryoo, S., et al., Differential Vascular Pathophysiologic Types of Intracranial Atherosclerotic Stroke: A High-Resolution Wal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Stroke*, 2015. 46(10): p. 2815-21.
4. Noh, H.J., et al., Role of high-resolut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the diagnosis of primary angiiti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J Clin Neurol*, 2014. 10(3): p. 267-71.
5. Kim, T.W., et al., Intramural hematoma detection by 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 in intracranial vertebral artery dissection. *Cerebrovasc Dis*, 2013. 36(4): p. 292-8.
6. Gottesman, R.F., et al., Imaging characteristics of symptomatic vertebral artery dissection: a systematic review. *Neurologist*, 2012. 18(5): p. 255-60.
7. Provenzale, J.M., MRI and MRA for evaluation of dissection of craniocerebral arteries: lessons from the medical literature. *Emerg Radiol*, 2009. 16(3): p. 185-93.
8. Lum, C., et al., Vertebral artery dissection with a normal-appearing lumen at multisection CT angiography: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wall hematoma. *AJNR Am J Neuroradiol*, 2009. 30(4): p. 787-92.

9. Park, K.W., et al., Vertebral artery dissection: natural history, clinical features and therapeutic considerations. *J Korean Neurosurg Soc*, 2008. 44(3): p. 109-15.
10. Shin, J.H., et al., Vertebral artery dissection: spectrum of imaging findings with emphasis on angiography and correlation with clinical presentation. *Radiographics*, 2000. 20(6): p. 1687-96.
11. Kitanaka, C., et al., Nonsurgical treatment of unruptured intracranial vertebral artery dissection with serial follow-up angiography. *J Neurosurg*, 1994. 80(4): p. 667-74.

Natural course and medical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김 대 원

원광대

Although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 is less common than cervical artery dissection in adults of European ethnic origin,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 is reportedly more common in children and in Asian populations. Noninvasive neuroimaging techniques are increasingly identifying unruptured intracranial arterial dissections (IADs) at examination for headache or ischemic symptoms. Approximately 3% of cases of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SAH) are caused by IADs, but the natural history of unruptured IADs is not known.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s (IADs) are still considered relatively rare but are an important cause of stroke, especially in young adults. Furthermore, they are a cause of subarachnoid hemorrhage (SAH) or compression on brainstem or cranial nerves and are therefore of clinical significance. Publications on IAD presenting with ischaemia are scarce and comprise small series, whilst there are many publications about IAD presenting with SAH including large series. As a consequence, these studies are prone to recruitment bias. General recommendations are therefore difficult to formulate and it seem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clinical presentations with SAH or ischaemia since the natural history and prognosis of these conditions are very different. Treatment of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s is empirical in the absence of data from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Most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 surgical or endovascular treatment to prevent rebleeding, whereas patients with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 and cerebral ischaemia are treated with antithrombotics. Prognosis seems worse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than in those without. Currently, there are no studies supporting the superiority of anticoagulants to antiplatelet agents. A recent study failed to show a risk reduction of recurrent ischaemic stroke in patients receiving anticoagulants compared with those treated with antiplatelet agents. The use of anticoagulants in the acute phase of IAD is controversial as it can lead to progression of the dissection, expansion of the intramural hematoma and increased luminal stenosis or hemorrhagic transformation of recent cerebral ischemia. However, treatment with antiplatelet agents or anticoagulants appears to be safe according to some cohort studies.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anticoagulants or antiplatelet agents for at least 3–6 months or until complete recanalization of the artery has occurred. Patients with recurrent or progressive ischemic symptoms, despite medical therapy, or with enlargement of the dissecting aneurysm are usually treated with endovascular or surgical approaches.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SKEN-KSCVS 합동 연수강좌



Session IV. Intracranial Dissection: Treatment

좌장: 신용삼 (가톨릭대), 정영균 (인제대)

1. Surgical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박재찬 (경북대)

2. Endovascular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백승국 (부산대 영상의학과)

3. Complicated cases and panel discussion

주성필 (전남대)
김성림 (가톨릭대)
이재일 (부산대)
박중철 (울산대)

Surgical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박재찬

경북대

This presentation is particularly about the surgical treatment of dissecting anterior circulation intracranial aneurysms. Cerebral aneurysms arising at the non-branching sites are classified into 4 different types based on the lesional patterns of the internal elastic lamina. As Mizutani type 1, classic dissecting aneurysms of intracranial carotid circulation are extremely rare, they are discussed based on the clinical study by Ohkuma et al. Characteristic angiographic findings to confirm Mizutani type 1 arterial dissection are as follow: (1) the double-lumen sign (the presence of false lumen or an intimal flap) is used as a reliable finding of arterial dissection; (2) stenosis with dilatation (the pearl and string sign) is also used as a reliable finding of arterial dissection; (3) dilatation without stenosis requires an additional definition to confirm arterial dissection (Discoloration of the affected artery around the aneurysmal dilat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due to intramural hematoma, should be seen during operation); and (4) stenosis without dilatation (the string sign) or occlusion (tapered occlusion) also requires additional definitions. Stenosis is not segmental but extensive on initial angiography, and resolution of stenosis or occlusion should be seen on follow-up angiography, which is considered to be a reliable angiographic sign of arterial dissection. The patient groups of bleeding presentation and ischemic presentation are compared in their angiographic findings and treatment.

Mizutani type 4 aneurysms arise in arterial areas with minimally disrupted internal elastic lamina without intimal thickening. In the presenter's clinical series, blister-like aneurysms arising at the internal carotid artery (n = 20),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n = 4), and middle cerebral artery (n = 3) are discussed. All blister-like aneurysms presented with acute subarachnoid hemorrhage and were treated surgically. Meanwhile, a case of an intra-arterial schwannoma at the M1 segment of a middle cerebral artery is discussed. It was misdiagnosed as an arterial dissection preoperatively, presenting with a subarachnoid hemorrhage and a small bulge of the M1 segment on the preoperative angiogram.

Endovascular treatment for intracranial dissection

백 승 국

부산대 영상의학과

I. INDICATION

First of all, patients presenting with an SAH should be considered endovascular treatment, particularly those with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s (IAD) in the posterior circulation. These patients should first undergo a diagnostic angiogram to assess for a direct cause of the hemorrhage, such as a pseudoaneurysm. The diagnostic angiogram would also study the collateral circulation, the length of the dissected segment, and vertebral dominance. Intracranial pseudoaneurysms have a reported mortality rate as high as 83% and a rerupture rate of approximately 40 - 70% within the first 24 hours of presentation. Occlusion of the entire dissected segment with or without flow replacement is the treatment option associated with the lowest risk of rehemorrhage. Although this could be achieved through proximal occlusion, trapping of the dissected segment might be a better option to avoid filling of the occluded segment through a retrograde flow from the contralateral vertebral artery. The procedure can be performed endovascularly, although in certain cases an open surgical approach might be preferable to visualize and preserve the PICA and brainstem perforators. In cases of ruptured vertebral artery dissection that extends to the basilar artery, treatment options are limited. These lesions are notoriously difficult to treat. If the patient passes the balloon test, occlusion and then a proximal occlusion of the basilar artery or bilateral occlusion of the vertebral arteries might be the best option. Otherwise, a stent-in-stent technique can be attempted with potential stent coiling of the pseudoaneurysm.

Another indication in which endovascular treatment is indicated in the acute setting is when dissection results in acute arterial occlusion. In these cases, hemodynamic compromise, and not thromboembolism, is the mechanism behind ischemia of cerebral tissue. In these patients, attempts can be consistent to restore flow. First, high-volume fluid resuscitation should be started to reach a normotensive state with a likely benefit of a slight hypertensive state. Once the patient is stabilized, an intervention to restore normal flow should be considered.

Other than these 2 indications, endovascular therapy should be considered if medical management fails or the patient has a contraindication to antithrombotic agents. Although no textbook definition of failure of medical therapy exists,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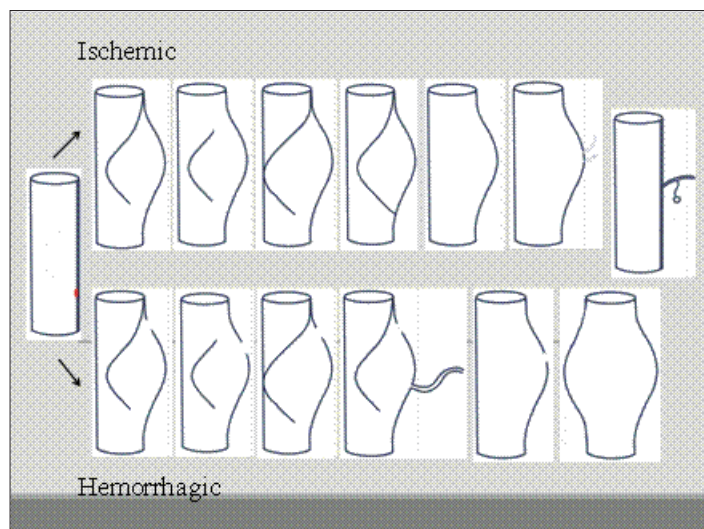
is generally agreed that progression of neurologic symptoms and new ischemic events despite adequate antithrombotic therapy define failure of medical therapy. Whether pseudoaneurysm enlargement can be considered failure of medical therapy is controversial.

II. MANAGEMENT

Ischemic

Endovascular treatment is undertaken only in patients with recurrent ischemic symptoms despite receiving optimum medical treatment. Sometimes, endovascular treatment is undertaken if the dissecting aneurysm has increased in size, to prevent rupture, or more rarely to reduce signs of brainstem compression. In children, the preferred and widespread practice is surgical or endovascular treatment in patients with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and those without subarachnoid hemorrhage and mass effect, whereas patients with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 without subarachnoid hemorrhage and cerebral ischemia tend to be given medical treatment

Treatment options include intra-arterial thrombolysis, coils, and stents. Endovascular therapies are not only minimally invasive but they offer the ability to both diagnose and treat patients within a single procedure and are thus being adopted into practice more broadly. By allowing for the direct delivery of thrombolytic agents at the site of dissection, intra-arterial thrombolysis is preferred to intravenous thrombolysis because it decreases the resulting dose requirements and reduces the risk of complications. Intra-arterial thrombolysis in conjunction with either a bypass or a stent has also been shown to be effective. Endovascular therapies include the deconstructive and reconstructive treatments. The details will be described be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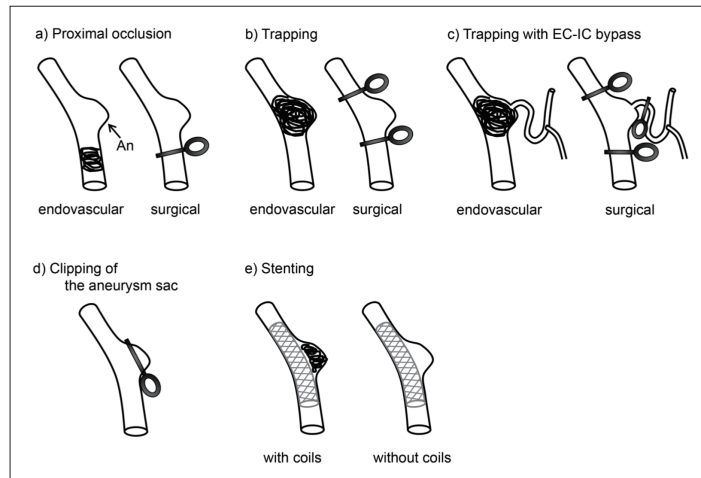


Hemorrhagic

Because of the risk of rebleeding and higher mortality, IAD in patients presenting with hemorrhage are treated more aggressively than those involving ischemia. Patients who are treated conservatively for SAH have been found to have poor clinical outcomes, resulting from frequent rebleeds. Ruptured dissections are unstable and have a tendency to rebleed. Studies on the treatment of posterior circulation IADs presenting with SAH report high mortality and poor outcomes. However, this situation is often confounded by the poor initial presentation and preexisting contraindications to more aggressive therapies.

Endovascular therapies include the deconstructive and reconstructive techniques including proximal occlusion, trapping with or without extracranial-intracranial (EC-IC) bypass, coiling of the aneurysm sac, 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 of the aneurysm including the use of flow diverters.

These options are individually chosen for patients based on vessel morphology and anatomy (i.e., the involvement of critical artery or perforating branches).



1. Parent artery occlusion (Fig. a, b, c) is a deconstructive technique in which blood flow into the dissected segment of the artery is stopped by occlusion either surgically or through an endovascular approach. Preferably, the dissected segment is occluded both proximally and distally to prevent rerupture through retrograde filling of a dissecting aneurysm. Parent artery occlusion has a risk of brain infarct in case of insufficient collateral supply. Before permanent occlusion, the collateral supply can be assessed with various methods.

2. Reconstruction (Fig. d, e) can be performed using flow diversion devices or stents to separate the true and false lumens. This strategy leads to a controlled thrombosis of the dissection or the dissecting aneurysm and preserves patency of the parent vessel, thereby preserving physiologic cerebral blood flow. In endovascular treatment, stent-assisted coiling can be used. Stenting of the dissected artery without any coiling by flow-diverter stents or conventional close-cell stents has been reported in small series; however, several days to months can pass before the dissecting aneurysm is thrombosed. Moreover, stenting needs dual antiplatelet treatment for several months after the procedure, thereby exposing patients to an increased risk of hemorrhagic complications.

3. Endovascular treatment of IAD is typically performed with coils and/or stent including flow diverters. However, in the certain cases such as peripheral located dissecting aneurysm or severe luminal narrowing within the diseased segment may preclude distal access for coiling or stenting. In this situation, a liquid embolic agent such as glue or Onyx may be helpful for traversing the stenosis and achieving parent artery occlusion or aneurysm obliteration.

References

1. Surgical Management of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 Arimura K, Iihara K. *Neurol Med Chir* (Tokyo). 2016 Sep 15;56(9):517-23.
2. Updates in the Management of Cerebral Infarctions and Subarachnoid Hemorrhage Secondary to Intracranial Arterial

- Dissection: A Systematic Review. Al-Mufti F, Kamal N, Damodara N, Nuoman R, Gupta R, Alotaibi NM, Alkanaq A, El-Ghanem M, Keller IA, Schonfeld S, Gupta G, Roychowdhury S. *World Neurosurg*. 2019 Jan;121:51-58.
3. Spontaneous cervical and cerebral arterial dissections: diagnosis and management. Rahme RJ, Aoun SG, McClendon J Jr, El Ahmadieh TY, Bendok BR. *Neuroimaging Clin N Am*. 2013 Nov;23(4):661-71
 4. Treatment of distal aneurysms of the cerebellar arteries by intraaneurysmal injection of glue. Cognard C, Weill A, Tovi M, Castaings L, Rey A, Moret J. *AJNR Am J Neuroradiol*. 1999 May;20(5):780-4.
 5. Yamaura A, Yoshimoto T, Hashimoto N, Ono J: Nation- wide study of nontraumatic intracranial arterial dissection: clinical features and outcome. *Surgery for Cerebral Stroke* 26: 79–86, 1998 (Japanese)
 6. Epidemiology,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tracranial artery dissection. DeBette S, Compter A, Labeyrie MA, et al. *Lancet Neurol*. 2015 Jun;14(6):640-54. doi: 10.1016/S1474-4422(15)00009-5. Review.
 7. Dissecting aneurysms of intracranial carotid circulation. Ohkuma H, Suzuki S, Ogane K; Study Group of the Association of Cerebrovascular Disease in Tohoku, *Japan. Stroke*. 2002 Apr;33(4):941-7.
 8. Novel use of onyx for treatment of intracranial vertebral artery dissection. Oh DC, Hirsch JA, Yoo AJ. *J Neurointerv Surg*. 2012 Jan 1;4(1):31-3. doi: 10.1136/jnis.2011.004952.
 9. Dissecting aneurysms of the vertebral artery--angiographic patterns at the dissecting site on balloon test occlusion. Kai Y, Hamada J, Morioka M, et al. *Neuroradiology*. 2012 Aug;54(8):857-62.
 10. Dissecting aneurysms of the vertebrobasilar system. A comprehensive review on natural history and treatment options. Santos-Franco JA, Zenteno M, Lee A. *Neurosurg Rev*. 2008 Apr;31(2):131-40; discussion 140
 11. Antiplatelet treatment compared with anticoagulation treatment for cervical artery dissection (CADISS): a randomised trial. CADISS trial investigators, Markus HS, Hayter E, Levi C, et al. *Lancet Neurol*. 2015 Apr;14(4):361-7
 12. Endovascular management of extracranial carotid artery dissection achieved using stent angioplasty. Malek AM, Higashida RT, Phatouros CC, et al.. *AJNR Am J Neuroradiol*. 2000 Aug;21(7):1280-92

Complicated case 1

주 성 필

전남대

Complicated case

Sung-Pil Joo, Young-Han Cho, Yoo-Sub Kim, Tae-Su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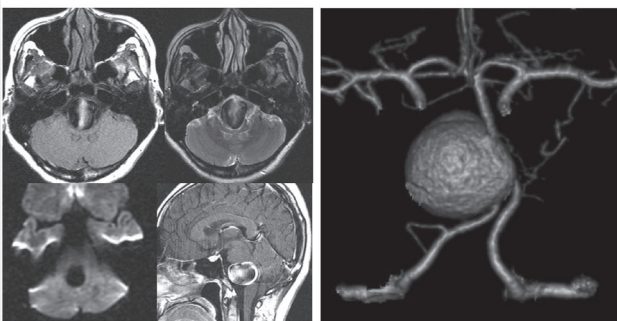
Department of Neuro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Medical School

Case illu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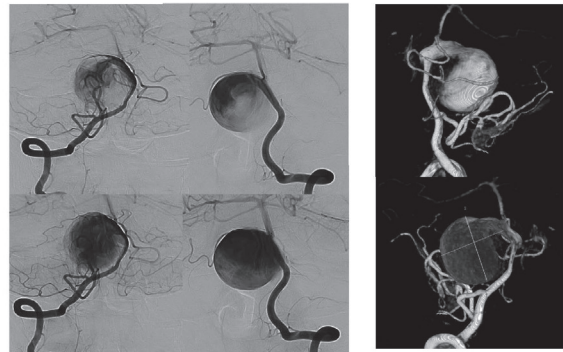
- A 27 year old girl
- C/C : dizziness
- N/E : Alert m/s
Pupil 3+/3+
No motor weakness

Higher cortical function : W.N.L.
C.N. exam : W.N.L.
Cbl sign : W.N.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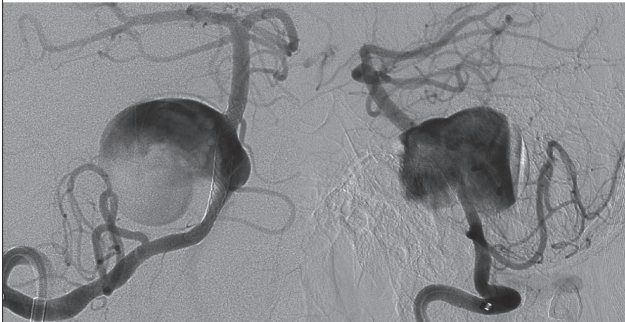
Case illu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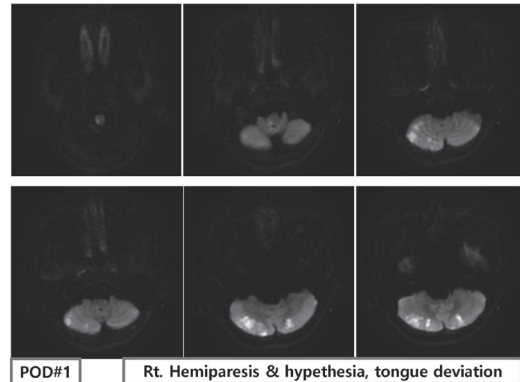
Case illu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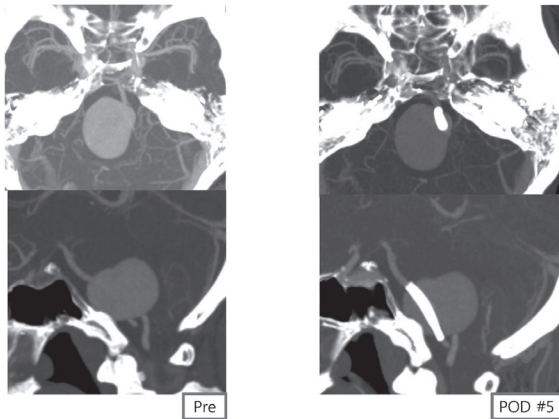
Case illu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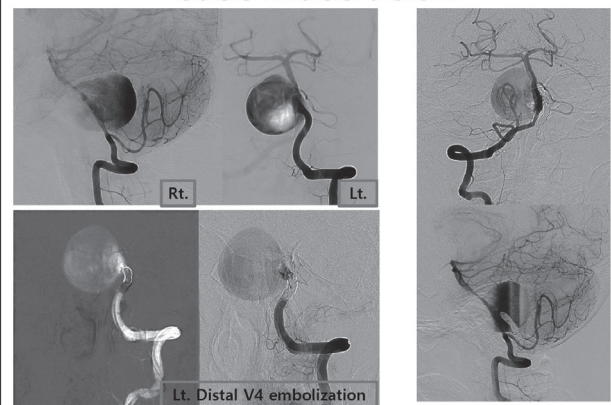
Case illu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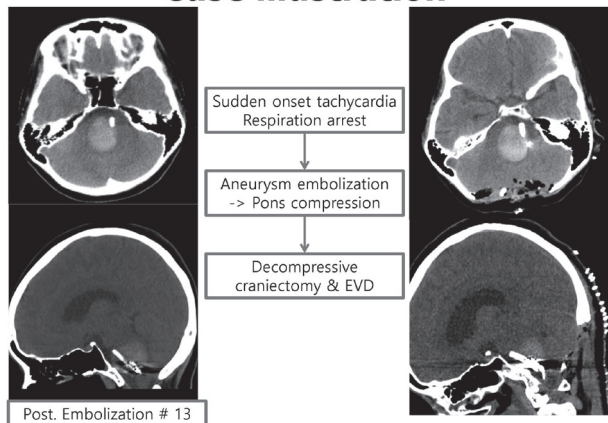
Case illu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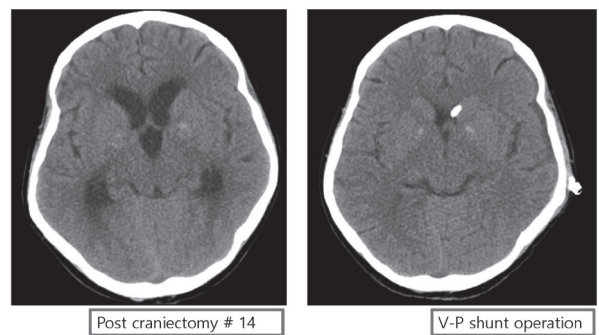
Case illu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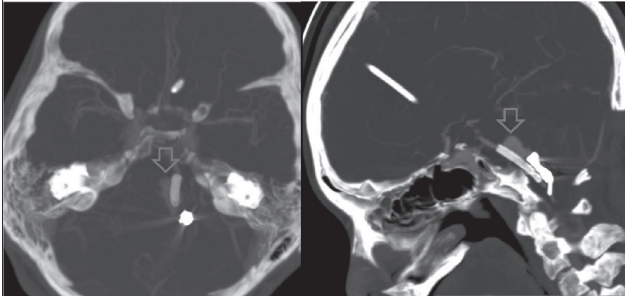
Case illustration



Case illu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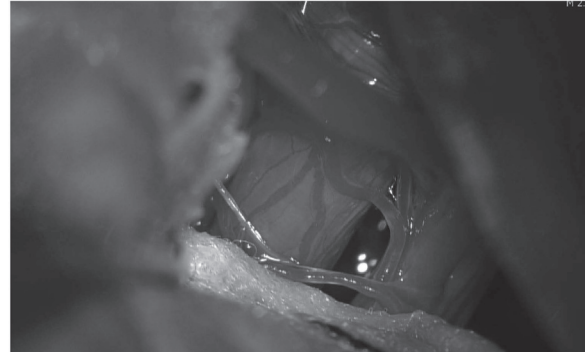


Case illustration



Post embolization # 26

Vasa Vasorum: Another factor ?



Complicated case 2

김성림

가톨릭대

[illegible]

Complicated case 3

이재일

부산대

Fibromuscular dysplasia (FMD) is a noninflammatory arterial disease with female dominance. The arterial manifestations could include dilatation, stenosis, dissection, aneurysm or vessel tortuosity. We reported an extremely rare case of subarachnoid hemorrhage caused by internal carotid artery (ICA) dissecting rupture in a patient with fibromuscular dysplasia.

A 38-year-old female was admitted to our neurointensive care unit with a history of sudden onset severe headache. A CT demonstrated subarachnoid hemorrhage at right sylvian fissure and basal cistern. A CT angiography showed tiny dilatation of right ICA communicating segment and left proximal ICA dissection. Conventional angiography confirmed right distal ICA dissection and Lt proximal ICA dissection with distal beads on a string sign. One day follow-up angiography revealed vessel wall remodeling, but we performed multiple stenting at dissecting segment considering risk of rebleeding. Double stenting facilitated dissecting flap reposition and reduced tiny dilatation portion. Seven days follow up angiography showed no further aneurysmal dilatation or in-stent stenosis and 3 months follow DSA confirmed complete obliteration of aneurysmal dilatation without stenosis.

We should consider FMD in young female patient with hypertension history and intracranial aneurysms or dissection. We also bring up the diagnosis and discussion of a cervico-encephalic artery and renal artery examination during the diagnostic work-up.

Complicated case 4

박중철

울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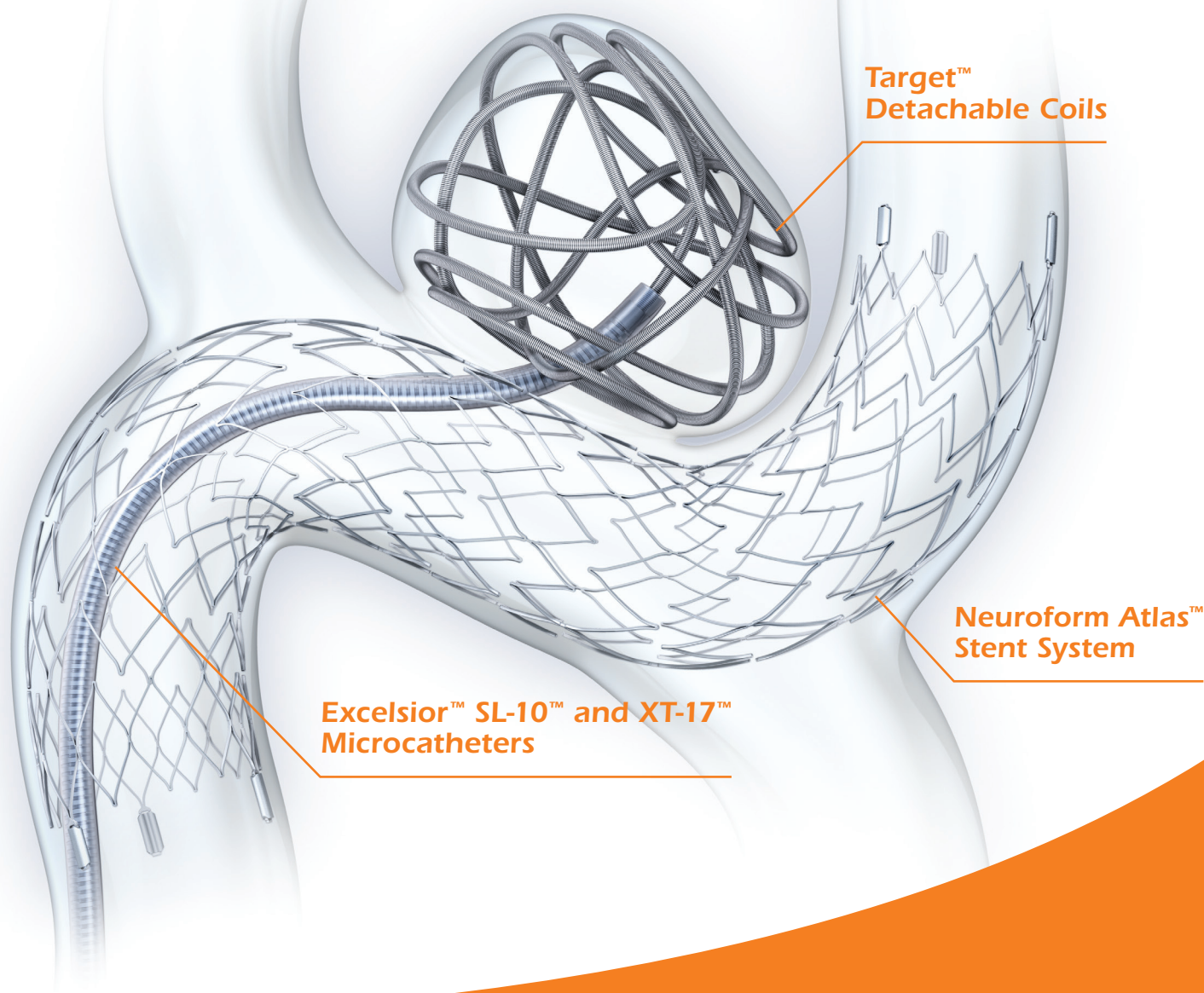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SKEN-KSCVS 합동 연수강좌

인	쇄	2019년 9월 4일
발	행	2019년 9월 7일
발	행	처
회	장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고 준 석
총	무	이 사
학	술	이 사
주	소	신 승 훈
		장 철 훈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서초동 동아빌라트 2타운) 407호
제	작	
주	소	엘에스커뮤니케이션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17 압구정빌딩 6층
		TEL) 02) 476-6718

Consistently smooth deployment and stability,
for the high performance you expect.



Target Hemorrhagic Solutions

Smooth and s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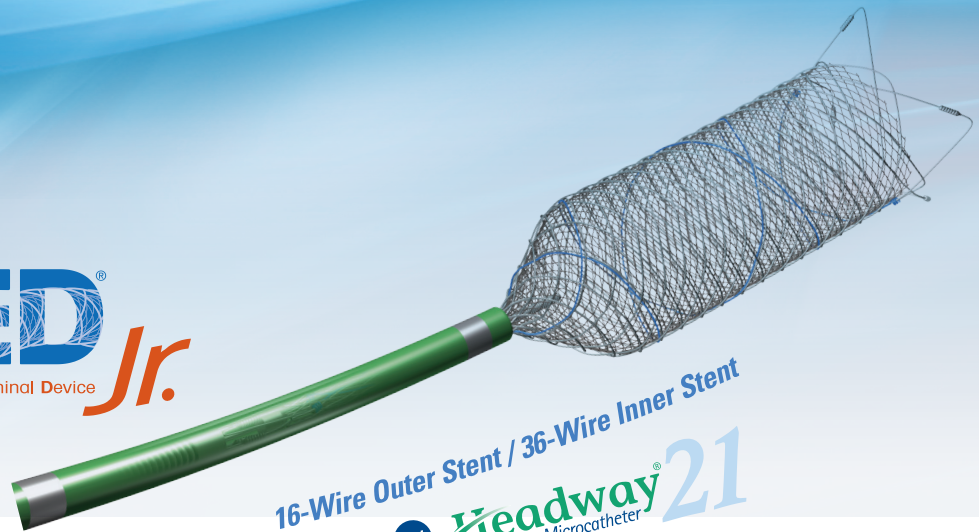
THIS DOCUMENT IS INTENDED SOLELY FOR THE USE OF HEALTHCARE PROFESSIONALS.

A physician must always rely on his or her own professional clinical judgment when deciding whether to use a particular product when treating a particular patient. Stryker does not dispense medical advice and recommends that physicians be trained in the use of any particular product before using it in a procedure. The information presented is intended to demonstrate the breadth of Stryker product offerings. A physician must always refer to the package insert, product label and/or instructions for use before using any Stryker product. Products may not be available in all markets because product availability is subject to the regulatory and/or medical practices in individual markets. Please contact your Stryker representativ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availability of Stryker products in your area. The Stryker products listed above are CE marked according to the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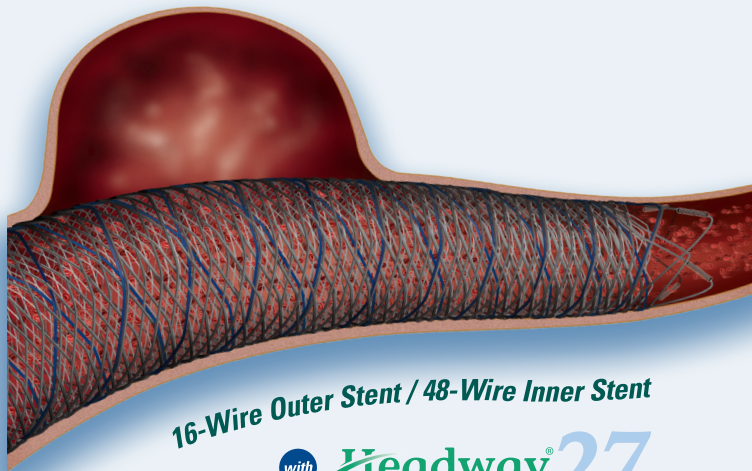


Intraluminal Advancements

FRED[®]
Flow Re-Direction Endoluminal Device *Jr.*



16-Wire Outer Stent / 36-Wire Inner Stent
with **Headway[®]** 21
Microcatheter



16-Wire Outer Stent / 48-Wire Inner Stent
with **Headway[®]** 27
Microcatheter

FRED[®]
Flow Re-Direction Endoluminal Device

